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穀用叺暴騰과 그對策

共販制度缺陷是正이急務

一

米作이 未曾有의 豐作을 告하야 多少 悲觀을 뜨게된 地方農家에서는 最近 穀用叺子의 大不足으로 穀物移動에 大困難을 當하고있다는 前代未聞의珍現象에關한 消息이 繼續하야 報道되어 一般의 注目을 끌게되엇는데 이에伴하야 叺價는 大暴騰을 告하야 平年에는 極上品으로도 十七八錢에서 二十錢未滿을 呼價하든것이 最近에는 低廉한地方에서 四、五十錢 其他六、七十錢으로부터 甚한地方은 一圓內外를 唱하는곳도 잇다는 듯기에도 놀랄만한 一種의 亂騰振動을 지고내고잇는것은 實로 輕視하지못할 一大問題로서 그原因究明과 이에對한 時急한 對策樹立이 要望되고잇다。

二

이叺價暴騰은 叺子不足、即需要에 對한 供給不足에 基因한것은 勿論이나 이供給不足이 需要의 急激한 增大에 基因한것이냐 또는 供給 即生産力減退에 基因한것이냐하는것이 問題인데 今回의 境遇에 잇서서는 原因이 그리 單純치안코 이두方面에 各其 相當한 原因이 잇서서 事態가 一層 激化되고잇는듯하다。이제 叺子不足의 原因으로列擧되고잇는것을 보건대 需要增大는 (一)未曾有의 豐作에依한 需要增 (二)時局關係로因한 軍用叺의增加 (三)異例인 政府의朝鮮米買上과 時急한 需要 (四)朝鮮式『섬』使用廢止等이오 生産力減退原因으로는 (一)凶年의 後年으로 製叺原料인藁의 不足 (二)新鐵路敷設、砂金採掘等 勞動力需要增大에依한 勞動力의 移動 (三)米價高其他一般物價高에 比해 叺價는 過低이어서 低廉한 勞働의 忌避와 轉業者의 續出等等이라고한다 이제 以上의 事實을 綜合하야 생각할때에 需要增、供給不足의 두편에 다 原因이 잇기는하나 需要增大보담은 生産力不足에 보담더큰 原因이 잇다는것을 認定치안흘수업다。이것은 例年에는 穀用叺二百二十萬 乃至 二百五十萬枚 肥料用 百五十萬枚의 在庫品을두고 日本內地에까지 移出하는것이 今年에는 在庫가하나도업고 政府米買上等에 依한十一、十二兩月의 百五十萬枚의 需要에도 應할수업다는 事實을보아 알일이니 萬若 單純히 需要增에만 原因이 잇다면 能히 例年의 在庫品으로써 爲先 이에應하고 이어서 生産되는것으로써 繼續的需要에應할수 잇섯슬것임으로 써다。

三

이것을 더 率直簡明하게말하자면 叺子不足의原因이 生産力은 依然한데 需要가 激增된까닭이 아니오、需要는 增大되는데 生産力은 오히려 減退된 二重의 原因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런데 이 生産力減退는 上述한바와가티 原料不足、勞働力移動이 그主因인바 이勞働力의移動은 勿論 新規工事起工等으로 因한것이 相當數에 達하는것도 認定하나 그보다는 이보담 高率의 賃金을 바들수잇는 勞働에 轉業하는者가 續出하는데 까닭이잇다。이것은 곳 製叺에依한利得이 다른 勞働보담 不利하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인데 그러면一時는 農村救濟事業으로 가장 適業이라고 奬勵된 製叺製織이 무엇때문에 低廉한 勞働으로 看做되게되엇는가하는것이 問題이다。이것은 勿論 叺價의 過低의 根本原因이어대잇느냐하면 이것은 叺籠 共販制度의 一種의 缺陷에잇는것이 아닌가생각된다。勿論 共販은 奸商의跋扈를 排擊에依한 生産者의擁護가 그目的이나 事實은 이와反對로 中間會社나 商人만이 利益을보게되고 生産者는 도로혀 不利한立場에 노히게되는것은 最近의 事實로보아 歷然하다。即 地方에 따라 多少相違하나 京畿附近의 例를보면 道叺叺籠産業組合과 京畿叺産業會社와가 中間會社가 協定하야 決定된價格이 農會에通達되면 이에依하야 共販이 實施되는데 이 共販價格과 市價와는 懸隔한 差異가잇서서 生産者의 利益은 極少하고 結局利는 商人側에 도라갈뿐 아니라 最近에는 中間會社側에서도 手數料以外에 不當한 利益을 보고잇다는說도잇서서 叺價暴騰이 生産者에게何等 利益을주지못하기때문이다。

四

그러므로 이叺子不足에 依한時價暴騰對策을 樹立함에잇서서는 現今 地方的으로 考慮되고잇는 叺價의引上、奬勵金의支給、供托制度、玄米用叺의 二等品使用 認定等의 措置는 勿論 必要한 일이나 그보다는 上述한 共販制度가운데잇는 某種의 缺陷을 是正하야 中間會社나 商人이 不當한 利益을보게됨으로말미암아서 生産者가 밧게되는 不利를 排除하야서 生産者로하여금 그業에 安心케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니 그러치안코는 增産助成策의 効果도 또한 疑問이라할것이다。時價暴騰에 不拘코 生産者의 收入은 從前과 다름바업다면 物價와勞賃이 다함께 昂騰을告하는때에 가장 低廉한勞働에從事하려고할 까닭이 업슬것이다。이意味에서 共販制度缺陷是正이야말로 그根本對策이며 또한急務가 아닌가한다。當局의 一考를 促하는바이다。

敵軍不意를衝擊코 山本部隊溧陽占領

空軍天生港砲臺爆擊

【宜興一日同盟特派員發至急報】我山本部隊는 溧陽으로 向하야 進擊中 三十日深更에 敵의不意를 찔러 急追하야 이를擊破하고 一日午前七時 溧陽을 占領하고 日章旗를 揭揚하엿다

【上海一日發同盟】昨日南方의 蕭山大爆擊을 敢行한 我海軍航空隊는 今日黎明부터 大擧西北方으로 달리어 江陰要塞對岸의 天生港砲臺에 〇〇瓩의 巨彈을 퍼부어 이에大打擊을 與하엿다

溧陽의陷落은 敵에게致命傷

【上海一日發同盟】我軍이 占領한 溧陽은 南京防衛第二線 東南方의要塞이요 이에依하야 我軍은 丹陽으로부터 宣城을 連結하는 戰線의 中央을 突破함에 成功하엿다 溧陽의陷落은 今後의戰局에 重大影響을 주는것이므로 이結果 丹陽、金壇의 敵은 非常한脅威를 밧게되어 이를端緖로하야 南京防禦第二線 陣地도 嚴然히 危機에 瀕하게되엿다 이에 突擊한 我山本部隊는 二十七日 長興을出發한以來 모든困苦를 무릅쓰고 二十里에亘한 山岳地帶를 突破하고 頑敵을 擊滅하면서 마침내 赫赫한 戰果를收하엿다

理峽殘敵擊破

【石家莊一日發同盟】太原方面의 我軍은 山西省治安工作과 相俟하야 殘敵討伐을 行하고잇는데 三十日朝零度下의 酷寒을 冒하며 太原南方十二粁의 理峽方面의 高地에 依據한 約五六百의 殘敵에 對해 飛行部隊와 協力하야 猛攻擊을加하고 午後一時에 至하야 마침내 同高地를 奪取하엿다 同殘敵은 山西軍의 敗殘兵으로 物資가 缺乏되여 同高地에 洞窟式陣地를 設하고 이를 本據로 我軍의 糧食物資를 奪取하고저 企圖하고잇든것이다

坂谷理事渡東

【大連一日發同盟】滿鐵坂谷理事는 一日飛行機로東京으로向하엿다

丹陽猛攻擊開始 敵軍西方으로退却

【常州一日同盟特派員發】丹陽의 敵은 我猛攻에 견듸지못하야 一日午後四時頃부터 西方으로 向하야 總退却을 開始하엿다

伍堂使節 獨空相과會談

【伯林三十日發同盟】國民使節伍堂卓雄中將은 三十日午後一時 괴링空相을 官邸로 訪問하고 約一時間동안 懇談을遂하엿다 會談은 今後의 日獨經濟關係에도 抵觸하엿는데 괴링空相이 經濟四個年計劃長官인 事實에 鑑하야 會談內容을 重視하고잇는데 伍堂使節은 會談後 即時如左히 말하엿다

今日괴링空相과 會見하고 國民代表로서 日支紛爭에 對한 獨逸의 友好的 態度에 感謝의意를表하엿다 다음 今後發展하는事態에應할日本의經濟的方策에 關하야 我方은 特히獨逸과優先的으로協力할 用意가잇다는것을 說明하고 될수잇스면 日獨兩者間에 經濟提携에關한 原則的協定을 締結하고십다는것을말한바 괴링空相은 贊成하고 特히生活力이旺盛한獨逸은 對支貿易이 消滅에瀕하여잇는 現狀에鑑하야 今後發展에 자못關心을가지고잇다고述하엿다 空相은 다시支那가 여러가지宣傳을 하고잇는事實을 指摘한後 自己도『日本의勝利를確信한다』고 述하고『事變이速히 解決되도록바란다』고 말하엿는데 熱情家 괴링空相은 日本에 非常한 好意를 가지고잇다는印象을주엇다 그런데 伍堂使節은 明一日 히틀러總統과 會見하고 三日에는 노이라트外相과도 會見할터이다

杉下芬蘭公使 歸東次淸津寄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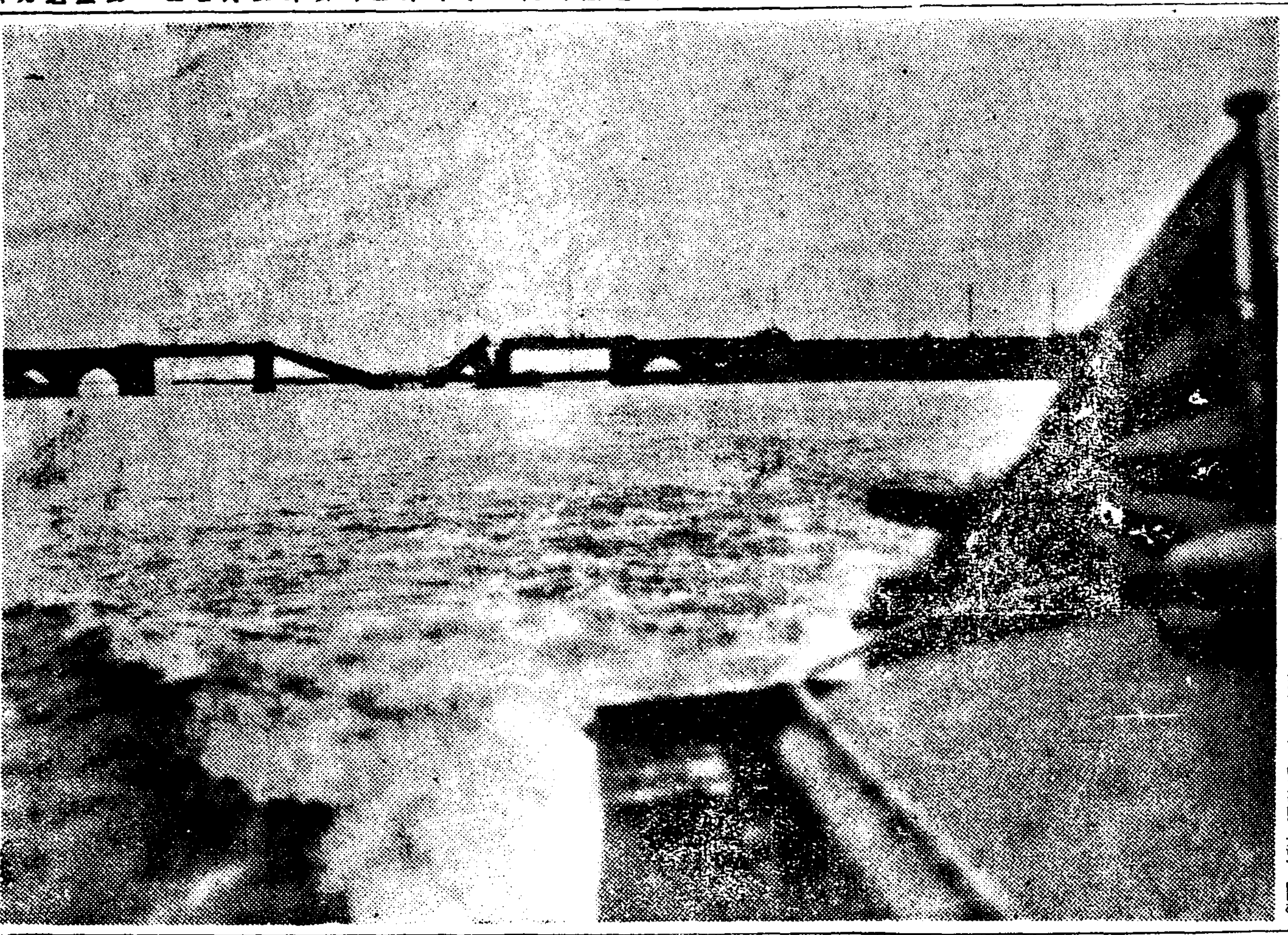
【淸津本社特派員吳快一發】芬蘭公使에 榮轉하야 前任地海參威로부터 歸朝하는途中 西伯利亞丸으로 一日午後一時半 淸津에 寄港한 杉下裕次郞氏는 隨行의 쿠夫婦뿐이 一名과가티 特等家族室에 籠居한대로 『사롱』에도 나오지안코 『齒根을 手術한結果가 惡化하야 化膿하여 困難이라』고 記者團을 爲始하야 一切面會를 避하고 敦賀로 向하엿다

閑院參謀總長 宮殿下御參內

【東京電話同盟】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一日午前十時廿三分 宮中에 御參內하시와 天皇陛下께 拜謁하시고 御所管事項에對하와 御奏上하시엿다

御菓子及御歌 下賜吩咐를拜하고 南朝鮮總督謹話

皇后陛下께압서는 出征及戰死軍人의 遺族及家族의 心情을 軫念하압시는 感謝하압신 御歌와함께 銃後의 後援事業에對하야 多額의 御內帑金을 下賜하압시와 國民이모두 感泣하엿는데 今回에거듭 支那事變에잇서서 戰死又는 殉職의 陸海軍將校以下及關東局과外務省警察官에對하야 特別하압신 軫念으로써 御菓子及御歌下賜의 御吩咐를 拜하압고 거듭 恐懼感激不堪하는 바이다 半島官民은 이深遠하압신 御仁慈에 感激하와 護國의 英靈에 獻身하는同時에 더욱히 遺族의 扶助慰藉에 最善의 努力을 쌍드러 鴻恩의 萬分之一에 奉應하기를 期할覺悟이다


我軍에게 爆破된 青陽港鐵橋

프랑코政權代表에 外相承認을宣言

人民戰線政府는否認

(寫眞은 廣田外相)

【東京電話同盟】프랑코政權을 西班牙國의 正式政府로 承認하기로 決定上奏하야 御裁可를得하엿스므로 廣田外相은 一日午後三時半 外務省에 프랑코政權의代表카스테이요氏의 來訪을 求하야 帝國政府과 프랑코政權과의間에 交換公文書를 授受하고 廣田外相은 口頭로써 帝國政府는 十二月一日을期하야 今次프랑코政權이 西班牙國의 正式政府임을 承認한다고 宣言하고 正式手續을 完了하엿다 如斯히하야 帝國政府는 茲에 西班牙國人民戰線派인 西班牙의現政府를 否認하고 國民戰線政府를 友好國으로 確認하엿다 또 政府는 同日夕刻外務省聲明과 當局談을 發表하야 프랑코政權의 承認을 中外에 聲明하엿다

프랑코將軍에 外相멧세이지

【東京電話同盟】廣田外相은 프랑코政府承認에 際하야 一日左와如한 멧세이지를 프랑코將軍에 打電하엿다

帝國政府가 貴政府를承認함에當하야 閣下에 深甚한 祝意를表하는同時에 兩國間의歷史的友好關係가 一層緊密하게될것을 確信하고 兼하야 閣下의 幸福과 西班牙國民의 繁榮을 祈願한다

滿洲國政府도 프랑코政府承認

二日午後에正式發表

【東京電話同盟】滿洲國政府의 프랑코政權承認은 帝國政府의 同政權承認에 뒤이어 二日決行될터인데 同日午後滿洲國側代表阮振鐸大使와 프랑코政府側代表카스테이요氏間에 正式承認의 公文書를 交換하고 右宣言을 同日午後五時 滿洲國大使館에서 正式으로 發表케되엿다

外務省發表

【東京電話同盟】帝國政府는 一日午後三時半 프랑코政權을 西班牙政府로 正式으로 承認하엿는데 同日午後四時半 外務省에서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帝國政府의 西班牙프랑코政府承認에關한 外務省發表

帝國政府는 西班牙프랑코政府를 承認하기로 決定하고 十二月一日 東京프랑코政府代表者의 資格을 承認하는同時에 同代表를 通하야 承認의旨를 프랑코政府에 通告하엿다

宮澤次長渡東

【大連一日發同盟】滿洲國民生部次長宮澤惟重氏는 治外法權撤廢에伴한 善後處置에對하야 日本政府當局과 協議하기爲하야 一日飛行機로 大連發東京으로向하엿다

奉天伊總領事 公使任命內命

【奉天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의 滿洲國承認에 伴하야 同國政府는 一日奉天駐劄 伊太利總領事루이지・코르레제氏에對하야 公使任命의 內命을 通牒하여왓다 滿洲國政府의 아구레만을어더 正式으로 發表될터인데 公使館은 明春初 新京에서 開設될터이다

蘇大使館搜查 波國、蘇大使館否定

【월소一日發同盟】波蘭駐劄蘇聯大使야코프다리처렌氏와 二等書記官아렉산도로프氏는 本國召還의 訓令을 바덧는데 二十九日게・페우의 一團은 蘇聯大使館에드러가 家宅搜査를行하얏다고 傳한다 그런데 波蘭政府及蘇聯大使館當局은 一日 全然事實無根이라고 右報道를 正式으로 否定하엿다 最近蘇聯大使館의 近處에서 警官의 家宅搜査가잇섯기때문에 아마이것이 誤傳된것이라한다

蘇聯大佐漢口着

【香港一日發同盟】昨夜漢口로부터의 情報에 依하면 蘇聯航空委員으로 蘇聯義勇인 드랏도위치佐官과 라드포시가레스 兩大佐는 三十日正午頃 漢口에 飛行機로 到着하엿다 그리고 昨日은 四發動機附 蘇聯製爆擊機三臺가 비로소 漢口上空을 飛翔하엿다

夕刊後市況 一日

◆東京短期◆

	後引	高値	低値
鐘紡	三二・三	三二・五	三四・七
同新	二四〇・七	二四六・三	二四七・九
鐘新	八八・一	八八・〇	八八・一
大新	一五九・三	一六〇・五	一五九・〇
東新	七六・三	七八・九	七六・三〇
日産	―	八〇・五	八〇・三
同新	―	―	―
拓新	―	―	―
日魯	五二・五	五二・五	五二・五
北紙	―	三二・八	三二・八
製粉	―	―	―
商船新	―	―	―
帝人新	―	―	―

◆大阪短期◆

	後引	高値	低値
東新	一五九・九	一六〇・三	一五九・九
大新	八七・九	八八・五	八七・九
鐘新	二四五・〇	二四七・五	二四一・五

◆各地期米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新	八八・一	八八・九	八八・一
東新	一五九・三	一六〇・三	一五九・〇
日鐘	二一〇・六	二一二・〇	二一〇・四
釜山	三二・四〇	三二・〇〇	三二・〇一
群山	三二・四〇	三二・七〇	三〇・九九
木浦	―	―	三二・六五
下關	―	―	三三・三〇
名古	―	―	三三・三〇

◆大阪棉花後引◆ 當限 六九九五 先限 五五一〇
◆橫濱生糸後引◆ 當限 六九〇〇 先限 六七九〇〇
◆大阪人絹後引◆ 當限 六六四〇 先限 六九八〇
◆福井人絹後引◆ 當限 六五五〇 先限 六九五〇

郞溪宣城溧山으로 各部隊猛進繼續

【廣德에서一日發同盟】廣德을占領한 山田(鐵)藤田等의 諸部隊는 破竹之勢로써 郞溪宣城溧陽으로 向하야 各其猛追를 繼續하얏는데 郞溪로 進擊한 部隊는 一日午前九時지나 合路口를 占領하고 또同十一時 陳家鋪丘陵等을 突破하고 郞溪로猛進을 繼續하고잇다 宣城으로 猛進한 部隊는 午前八時 四殿舖를 突破하고 同十一時花舖塘에 達하엿고 또溧山으로 向한 部隊는 懷步鋪를 占據 北進하고잇서 我皇軍은 郞溪宣城溧山의 各縣城을 目標로 단숨에奪取하려하고잇다

下層階級모아 鋤奸救國會組織

【香港一日發同盟】最近廣東의民衆鋤奸救國會下에 組織된 日貨根絶委員會員을 使嗾하야 日本商品을 取引하는 支那商人에 對한 壓迫을 企圖하고 十數日前 秘密히 赤色學生을 廣門으로派遣하야 同地의 雜貨商黃澤田을 日本品을 販賣하엿다는 嫌疑로피스톨로 射殺한 事件을爲始하야 昨夜七時半 香港의 큰노트路에서 埠頭勞動에 從事하는 王槃號에 爆彈을 投下하야 支那人使用人三名을 爆死시키고 또同八時半 九龍深水의 支那海員李某宅에 爆彈을 投下하엿는데 모두 日本側과 關係가잇다고하고 行한所爲이다 數月前 廣東으로부터 同地에 國民黨部黨員이多數潛入하야 香港海員組合을 中心으로 下層階級을 煽動하야 鋤奸救國會를 組織시키고 所謂直接行動을 取하고잇서 今後더욱 그尖銳化가 豫想된다

米旗艦어號 마닐라로向發

【上海一日發同盟】上海事變勃發과同時에 黃浦江을 遡江 八月十四日以來上海防護에 任한米國亞細亞艦隊旗艦어거스타號는 上海의危機도지낫스므로 來十四日拔錨、마닐라로向하기로되엿는데 이에 代身하야 七千噸의 輕巡洋艦마블헤드號가 靑島로부터廻航하야 來十三日來滬할 豫定이다

事變以來敵機損害 合計四百十七臺

我空軍損害는六十機

【東京電話同盟】大本營海軍報道部 一日午後五時發表

支那方面艦隊司令官指揮下의 我海軍部隊는 繼續하야 全支沿岸의 支那船舶의 航行遮斷을 嚴密히 續行하는同時에 陸軍의 作戰에協力하야 上海附近의 諸水路를 啓開하고 그航空部隊는 連日敵據點及移動兵力에 對하야 大端히果敢하고 有効한 銃爆擊을 加하며 멀리 敵의背後로부터 武器輸送線 兵工廠을 爆破하고 又는 航空根據地로 急襲하야 몃倍나되는 戰果를 擴大하고잇서 十一月中에 確實히 擊破한 敵機의數는 四十三機(內譯 擊墜七 爆破三十六)그間의 我空軍의 損害는 九機이다 그리고 支那事變勃發以來의 累計는 如左하다

◆事變發生以來我空軍이擊破한支那飛行機數

	確實한者	不確實한者	計
擊墜	一九二	七	一九九
地上爆破	二一一	七	二一八
計	四〇三	一四	四一七

◆事變發生以來의 我空軍機의損害 六〇

◆事變發生以來我海軍의 戰死者總數(十二月一日正午까지에判明된者)

准士官以上 一二〇名
下士官兵 七一五名
計 八三五名

正太線戰鬪에서 敵死傷五萬二千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 一日午後五時半發表 十月中旬부터 十一月上旬에 亘하야 北支方面正太鐵道沿線地區作戰에서 敵에게與한 損害槪數는 娘子關附近에서 太原本地進出까지의 死傷數約五萬二千(遺棄死體一萬一千五百) 捕虜 約三百인듯하다 그리고 右期間에잇서서 我部隊의戰死는 約六百五十이다

(備考 右는十一月二十日 陸軍省發表 彼我損害槪數中 未調査이든 山西方面의 一部이다 但我戰死는 北支方面中 이미發表가 낫든것이다)

이글號의射擊은 支那機로誤認

英海軍當局聲明發表

【香港一日發同盟】英國海軍當局은 一日朝 左와 如한 스테이트멘트를 發表하엿다

目下香港外 演習中의 極東艦隊所屬航空母艦이글號의 艦上機一機가 昨夜 와그단섬臺西南方三十哩上空을 飛翔하고잇든 雲上에서 下降하야 風의 方向을 測量하려고 照明燈을 落下하엿슬時 所屬不明의 船舶으로부터 射擊되엿는데 右는所屬不明의 船舶이 同이글號에 廣東으로부터 飛來한 支那空軍이 同船舶을 겨누고 爆彈을 投下한것이라고 誤解하고 射擊한듯하다고 稱한다

香港서抗日策動

政廳當局에重大警告

【香港一日發同盟】水澤香港總領事는 一日香港政廳에 英國總督을 訪問하고 最近香港에 國民政府首腦가 頻히 出入하며 抗日的政治策動을하고잇는 事實에 關하야 如斯하여서는 香港도自然 事變의 渦中에 捲入될 念慮가잇스므로 此等策動에 對하야 充分取締하기 바란다고 深甚한 注意를 喚起하엿다

松井司令官會談

(寫眞은 松井司令官)

【上海一日發同盟】上海戰에觀戰武官으로 來滬한 와르든스少將(芬蘭)以下 英、米、佛、波蘭、羅、白耳義等 各國武官九名은 連日武官室의案內로 羅店鎭、楊行鎭、大場鎭、江灣、吳淞、寶山、南市、蘇州河等 激戰地를 歷訪하야 皇軍의 果敢한 進擊에모두感嘆하엿다 三十日夜陸軍武官室에서 松井軍司令官과 會見하고 約一時間에 亘하야 會談을遂하엿는데 席上에서 松井軍司令官은 此等 武官에對하야 左와如히 말하엿다

目下交戰中임으로 적적히 談하게되지못한것은 甚히 遺憾이다 그리고 南京에서 諸君과 맛나지못하는것도 遺憾이다 좀더잇다왓드라면 南京에서 會見할것을…吾의 宣傳보담도 一의實行이 重要하다 從來上海에서 行한 宣傳에對하여는 諸君이 實地로 目擊하고 這間의 事情을 본것으로 幾多의 敎訓을 어덧슬줄로思하다 諸君은 實際의 觀察에 依하야 過去의 宣傳에 그릇되여잇는 判斷을 是正하야주기바란다 其結果 비로소 東洋平和가 確立될것이다

國府、伊國에 威嚇的抗議提出

【上海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의 滿洲國承認은 漢口에移轉한 國民政府外交部에 非常한衝動을與하야 王寵惠外交部長은 三十日 爲先駐伊支那大使劉文島에 訓電을發하야 伊太利政府에對하야 伊太利政府의 滿洲國承認은 支那의主權을 侵害하고 聯盟規約及九國條約을 蹂躪한것이라할것이오 또支那朝野의感情을極度로 刺戟하야 滋味스럽지못한 影響을與할것이다라는 威嚇的抗議를 提出시켯다 또牢狂亂狀態에陷入한 國民政府는 支那在留의 伊國航空顧問과 多數한宣敎師에對하야 某種의威嚇的報復手段을 取하는것이아닌가하는 念慮도 一部에는 하고잇다

란抑留事件에 米言明을廻避

【華盛頓三十日發同盟】上海로부터의 報道에依하야 日本官局이 米國人所有의 란치를 抑留하엿다고傳하는데 三十日國務省當局은 『公報가잇슬때까지 아모말도할수업다』고 言明을避하엿다

辭令

總督府事務官兼朝鮮總督府事務官 任朝鮮總督府事務局囑(二等) 捕原時三郎
任朝鮮總督府事務局長 捕原時三郎
命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委員

多物 大衆向
洋服 羅紗 荷揃
三ッ揃・オーバ・ズボン
詰衿上下服 朝鮮人用オーバ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十八番地
田中宇商會
電話東二〇三五番

商卸製造物袋 (カタログ呈)
大阪市東區博勞町二丁目
福本又兵衛商店
電話船場二一〇五番

年賀状はゴム印
×時局向意匠の年賀ゴム印
●年賀ゴム印
●年賀ゴム印
●年賀ゴム印
●年賀ゴム印
●年賀ゴム印
(販賣店募集)
資本少く利益莫大
大阪市南區谷町六ノ十八番地
吉川商店
電話南武〇九番

婦人子供服用
ボタン バックル
品質優良・柄行嶄新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
中川釦店
電話東

人絹綿布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 本セル 金巾、金綾、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 懇切히 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大阪南局第二三〇號函
津村合資會社
商報送呈 見本은五十錢(切手)

インキのいらぬ 極めて便利な!
新朝日万年スタンプ台
銀花朱肉製造元
大阪 塚原商店

ハーモニカ
(蝶印高級)
蝶ダバンド ピックアップ
川口蝶超特選
全國各樂器店及百貨店デ販賣ス
發賣元
大阪市南區西道頓堀
吉川樂器店

家庭用諸金物卸
アルミニューム
銅眞鍮亞鉛鐵鋼
日用家庭諸金物
商報進呈郵券四錢要함
大阪市東區南本町四丁目
大阪銅器合資會社

食料品 オブラート バター 製菓料 菓實香料
商報贈呈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西本商店

新興かし
밀국수・우동 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의 고초가루
소면・우동 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 고초가루
新興蕃椒粉
類似品이만히잇사오니 商標에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 からし 製造本舖
京城 山西商店
京城 阿部本店
京城 辻本商店
京城 吉川商店
平壤 桑田商店
鎭南浦 江口商店
新義州 山七商會
日滿物産株式會社
元山 重枝商店
元山 小野本店
仁川 中村商店
咸興 德元商店

千年國寶石窟庵S·O·S

조선문화의 보금자리, 신라(新羅)천년의 왕도 경주(慶州)에는 귀중한 유적과 유물이 손꼽아 헤일수 업슬만큼 만흔중 이왕 발굴도는 발견된것만으로도 세계에 큰소리치고 조선의 존재를 자랑할것이 금관(金冠)이니 성덕왕신종(聖德王神鐘)이니 불국사(佛國寺)의 탑(塔)이니 가지가지로 들어 말할수 잇거니와 그중에 석굴암(石窟庵)의 본존(本尊)과 보살(菩薩)과 나한(羅漢)등의 섬세유아한 조각은 세계 미술사상 그 존재가 뚜렷하야 내외인이 한가지로 경탄하여마지안는 천하의 보물이되여잇슴은 다시 설명의 필요도업는터이다 그런데 이 석굴암의 거대한 조각물(物影)이 대정이년 총독부에서 모처럼 잘하노라고 대규모로 중수하엿다는것이 천년전 그당시의 건축구조의 지혜로운 묘방을 리해치못하고 단순히 풍우에 드러지안토록만 하엿스면 그만이라고 견고히 만들엇다는것이 과연 중수후의 경과로 보니 동해(東海)에서 몰려넘는 운무(雲霧)를 소화치못하야 여름철에는 암굴안이 완전히 이슬에젓저 바다이 습적하니 젓게되며 조각물에는 늘 물이 흐르며 이끼까지 끼고 또 들으로는 이슬에 양회(洋灰)와 화강암(花崗)의 석회질(石灰)끼지 녹아나리어 조각에 나타나잇는 보드러운 선(線)이 일부에 워지는것조차 잇서 이전의 석굴암을 아는이로는 전일의 그 맛을 차즐수 업다고 통탄하고잇다 만일 석굴암을 그대로 둔다면 근 이천백년동안 고히고히 직혀온 옛모습이 굴안에 안저잇스면서 글자 그대로 풍마우세(風磨雨洗)의 비참한운명에 빠질것은 결정적사실이라고 총독부로서는 박물관(博物館)만케자는 물론, 경주인사들은 조선의명예와 경주의 자랑을 앗기어 남달리 마음아파하고잇다 석굴암의 금후 보존은 어떠케할것이냐하는것은 학계의 문제요 조선의 문제요 동시에 동양의 미술을위하야 하로밧바 해결치안흐면 안될문제로 되여잇다

——사진은 석굴암속의 관세음상——

潮風과雲霧에서려 彫像마다風化作用

千年新羅의神技를無視한 疎忽한土木的修理가原因

석굴암은 불국사(佛國寺)의 뒤 토함산(吐含山)산상 불국사에서 십리조금못되는곳에 멀리동해바다를 눈아래굽려다보고잇는곳에잇다 본래는 석불사(石佛寺)가 잇든곳으로 그창설은 지금으로부터 천이백년전인 신라 경덕왕(景德王)때에된것으로 고려(高麗)때를지나 리조때에는 불각(佛閣)은 이미퇴락하야 약 이백여년전에 귀모를축소하야 석굴암이라고하고 현재의것만 유지하기에 힘썻든것이 그후다시 오십여년에 다 퇴락을하고 다시구십년주에 또수리를하엿스나 충분히못하채 남어잇다가 명치사십이년에 당시의 통감부(統監府)의 주의를끌게되여 조선고적보존에 큰힘을 넘긴 공학박사 관야정(關野貞)씨가 조사를한후 석굴암조각은 신라불교문화의 최고한존재로 현대학계의새로운광영을 던지게된것이다 석굴암의 안은면향은 바로 동남방으로 아츰부터오후까지 볏조알든곳에잇는데 석굴은 평면원형으로 좌우경(徑)이십이척륙촌 천정이 십영척칠촌 천정은 궁륭상(穹窿狀)으로되여잇는데그굴기가 역시이십수척이나되고 그안에는 한가운데 커다란 본존불이 웅려한 자태로안저잇고 벽은십오구(區)로단후어 중앙후면에는 십일면관음보살이잇고 좌우에는각히나한상(羅漢像)오체에보살상이체가잇고 굴밧게 인왕(仁王)과 사천왕(四天王)의상이잇는외에 굴안벽우에도 보살과 지장보살등이잇고 천정에도 련변(蓮瓣)을새인것이잇다 모다가 거대한화강암을 조아내인 양각(陽刻)...

이석굴암이 당시 총감부의 주의를끌고 중수를하게된 경로와 그후에 중수의 유치한것이 폭로된 경로는 이러하다.

석불사의 퇴락후 간신히 석굴암으로 이룸이 아는이에게만 전해지든 리조말년 김부에서 이룸일고 마음내 명치사십이년에 편야박사의 조사를 보게되엿슬때는 이안에 모래가 엇마큼 싸히고 들어가는 구녕도 좁게 쪼되여 잇섯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느냐 또는 서울로 옴겨가느냐하다가 도저히 서울로 옴겨갈수는 업다고하야 결국은 그자리에 안치할 방책으로 일단 수리를 하기로 하고 당시의 총독부 암정토목과장(岩井土木課長)이 토목전문가의 립장에서 그수리에 착수하엿다 이것이 대정이년인데 최초 이것을 중수할때에는 그리 긴 시일을 걸린듯이 생각지도 못하엿스나 일단 중수하자고 손을 대이기 시작하니 당초의 석조건축이 여간 기술로 되어잇는것이 아니고 보기보다도 대규모의것이어서 마즘에는 석굴을 전부 해체하게까지되니 대공사를 마추기까지는 시일도 근오년이나걸리고 공비는 근오만원이나 들엇다 그리하야 굴안을 그전의 그대로하고 그 우에 공사는 철근(鐵筋)콩크리-트로하고 바닥까지 「세멘트」로 다지어 당시의 공사담당자로서는 그만하면 천세에 남으리라고 맛고 흙을 내쉬엇든모양이다 그런것이 그다음 녀롤을 당하고보니 굴안은 중수전에 보지못하든 이슬이 큰비에나 저즌듯이 흘러내리며 푸른이끼가끼어 옛날에 보중보중하면서도 천년을두고 직혀온 고색(古色)은 다시 차저볼수업시되엿고 그나마는 굴안에 이슬이 고이어 밥을 옴겨밟기 힘들게까지되엿다 이런 결과를 보고서 비로소 알아채게된것이 석굴은 동해에 면한 노픈산에 잇는터이라 녀름에 바다로붙어올리는 안개와구름이 굴안에 들어가면 빠져나갈길이 업서서 그대로 이슬이되고 마는것이아니냐고 생각된것이다

(사진은 수리한 석굴암 외관)

現代文明의敗北 通風施設을沒覺

토치카式의堅固一方에만注力 咄!纖麗한彫像에靑苔만點點

그러나여쩌랴 소위현대문명을 자랑한다는 뒷날이 사람들의지혜와 도량이 그리케천박한데 머저버릴줄이야 누가알엇스랴! 옛날에도 지금이나 다름업시 전해여녀롤두고 안개와구름이 이석굴에 몰어들어엇건만 이슬한방울매쳐보적이 업섯다는것은 그당시에도 벌서 이런일이잇슬것을 예상하고 천정에 역근통풍으로 구녕을뚤러 바람이 넉넉히통할수잇게 하엿든것이 명백하다고 단정되엿다 그러나 이미때는느젓다 중수공사가 워낙대규모이엇고 그방식이 너머나 견고히 되엿기때문에 이것을 다시개수한다는것은 거이불가능에 갓가운만큼 간단치안허 다시 손댈곳대이고 그후계속하야 수리를한다는것은 굴안바닥에 괴이는 이슬을뽑기위하야 풀울쳐노앗고 그후에 이끼가 더럽게 끼기때문에 수증기로 씨처내이기나 한것뿐으로 지금이룰어떠케하여 영구히 신라건축술에 지지안는 방식으로 그개수를하랴하는것이 문제가 되여잇다 겸하야 동해에서 물어오는 안개바람에는 염분(鹽分)조차잇서 조각우에 하야케소금이돗는일도잇고 또천정속에 양회다짐을한것이 우에서내리는 비가숙이고 굴안향기운데는 당연히수증기의 유출로 이슬이 매칠것이요 그 이슬이녹리 회물이조각우에 엉겨 맨괴기까지하고 도이가터이슬이 매치거틴에 당연히 화강암의 풍화작용이 생겨저서 석물내외부상 나한보살상은 점점 레서 당시의사람들은 이겨을 미리피하기위하야 동합안으로 가장자리에 돌기울어잇는 금주물건은 그대로...

創建當初에는 換起施設確實

신라시대의 건축에대한주의가 여간깁지안허 오늘에 말하는 소위근대의 과학적 온갓배비을 다하엿든것은 여러가지의유적에서도 발견할수잇는데 특히석굴암의 구조에 선경으로 통풍(通風)흡혹 환기(換氣)가 가능할수잇슬만큼 만들어섯슬것이 확실타는 한가지 례증으로 분황사(芬皇寺)의 전탑(塼塔)이례가 가장적절하다 분황사탑은 선덕녀왕(善德女王)대의것으로 년전에 그내부에서 녀왕이쓰든것이라고 짐작되는 금바늘은바늘(金銀針)과 조지개 가위 구슬 실감개등 금으로만든것 옥돌로만든것들이 만히 닥겨잇는 석함(石函)이발견되엿다 지금으로말하면 벼룩과좀이 로좌우듬엇는데 그한가운데들로만든일을 무더두다면 돌늘에서 썩어진대서는 다시업슨 유감입니다

眞實로愛惜 尙今도無策 大阪博物館長談

석굴암의 금후보존책에대하야 경주박물관장 대판륙촌(大阪六村)씨는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석굴암의문제는 오늘에생각할수록 생각하면 한사람으로나 념려되는일입니다 예날에는 이슬이흘으지안든것이 중수이후 이슬이흘며 이끼가끼고 회물도약간흘러 보살상가튼데 이호려저 가는것가튼것은 실로 큰문제임니다 조선의자랑이요 동양의자랑인 보물의보존이 뜻갓지안해서는 크게유감입니다 총독부에서도 생각은하여오는모양이고 충독부박물관장등 연구중이나 아직 떠버방책을 못세우고잇는데 수도 만히념려하여 그대로 남어잇는것이 오늘에와서 허어진대서는 다시업는 유감입니다

朝鮮敎育政策의劃期的飛躍

專門校入學差別 明春부터斷然撤廢

內地人과朝鮮人入學生의 就學機會均等化

총독부에서 조선교육령의 대개정을 단행하야 명춘사월일일부터 조선초중등교육기관을 명실함께 통일하는동시에 전문, 대학에도 명춘사월부터 내용의 대개혁을 단행하기로된것은 이미보도했거니와 그중에 우리가 말로할것은 종래 수원고등농림(水原高農)、경성고등공업 고등상업(高工、高商)등을비롯하야 각관립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에서는 매년 모집하는 신입생중 조선인만은 인수를 제한하야 내지인보다 현격한차이로 차별취급하는배가잇서서 언제나 조선인지원자는 이너귀에 중압울바 더 불리한 희생을 당하는사실이 공정명랑하여야할 학원을차고 도는불평과 비난이 되여잇든중 남총독(南總督)부임이후 염원학무국장(鹽原學務局長)신임이래 조선교육기관의 획기적 대혁신을 단행하고자 지난번 총독부에 림시교육심의회(臨時敎育審議會)를 조직하고 지난십일월초순경 제일회총회석상에서 관공립전문, 대학에 조선인차별모집의 악폐를 단연철폐키로 되엿다 종래관공립전문, 대학조선인모집표준의 내용인즉 금춘의 것만보드래도 경성고등상업의 구십구명중 조선인 이십일명이 제일심하엿거이오 법학전문의육십구명중 조선인오십일명이 제일후한것이다 그런데 그지원인수로보면 이와반대로 대개내지인보다 조선인이 최저한도배를 돌파하는현상이다 이와가티 격심한차별밧침은 오래동안공연히 실시되다가 이번에도 일부의격렬한반대를 물리치고 단연철폐를 보게된것은 신춘을마지하는 조선교육계의 쾌소식이되는동시에 실로 학원의명랑한소식이다 이제 종래의례로서 소화십일년신학기와 금춘신학기 내선인모집인수의 비교를 조사하야보면 다음과갓다

◇昭和十一年各專門學校合格者內鮮人比較

校名	總合格者	朝鮮人
法專	六九	五二
醫專	八〇	三三
高農	六七	二四
高工	七七	二九
高商	九八	一一
合計	三九一	一四九

◇昭和十二年各專門學校合格者內鮮人比較表

校名	總合格	朝鮮人
大豫	一五九	五六
法專	六九	五一
高農	六四	一八
高工	九一	三三
高商	九九	二一
醫專	八二	一二
合計	五六四	一九一

今後十三年後면 義務敎育實際化

第二次로初等敎育擴充八個年計畫을세워 第一次五個年計畫과連繼

우원(宇垣)전총독시대에 결정되엿든 조선인초등학교배가(倍加)계획은 남총독(南總督)부임이후 현하조선실정에 빗추워 너무 외피적이라하야 여러가지로 론의되어오든중 십개년배가 활중개회를 일축하고 단면오개년으로 단축하야 학령아동의오할수용을 가능하도록 하기로되엿스며 도다시제이차로 팔개년계획을 수립하야 전조선학령아동을 전부 수용할수잇도록 대시설을 단행하기로 이미대방침을결정하고 그준비에 착착진행중이다 금년부터 전후십삼년동안에 조선인학령아동의 전부수용을 가능하도록 초등교육의 대확충을 단행하는것은 그예산으로나 시일로나 의무교육도실시할수잇슬터인데 이와가티 그 실시를 보지못하는것은 무슨까닭이냐 이에대하야 총독부학무당국 모수뇌자의말에의하면 다음과갓다

조선의 의무교육은 아직실시하기어려운 사정이잇스니 그것은 각가정에따라서는 의무교육령을 실시하드래도 넉넉히실행하야갈수도잇스나 벽항궁촌가튼데의가정을보면 의무교육령에 복종할수업는곳이 허다한것이다 그럼즉 법령을실시하드래도 실행못되는 공문이되고말터이니 그보다는 우선법의체재를 밧지안코 학령아동은 누구를물론하고 입학하고십흐면 입학할수잇도록 즉 실질적 의무교육을 시설하는것이 현하조선의실정에 적합할것으로본것이다 그러나 의무교육령을 실시하야 그법령을복종하기에 별로난관을바를 가정이 점차주리어서 한동지장이 업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는 언제든지의무교육을실시할것이라고한다

二百卅萬圓豫算으로 錦江支流를改修

今年度부터五個年繼續事業

충남금강(錦江)지류 금천(金川)의 개수공사는 금년도부터이백삼십만원 오개년 계속사업으로 착공하기로되여 삼십일 충남 귀암(貴岩)공립보통학교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엿다

治外法權의撤廢와 二重郵務統一

刷新되는滿洲國郵政

만주국의 치외법권의 철폐와 만철부속지 행정권의 이양에따라 만철부속지의 통신행정권도 당연히 이양되기로 결정되여 그조약과 이에따르는 우편관계의 모든규측이 개정되여 십이월일일부터 실시하게되엿다 종래만철부속지의 접양지에는 일만(日滿)량국의 경영인통신시설이 이중으로되여 극히 복잡한관계를 나타내고잇섯기때문에 이런 의 이양으로 그불편들이소하고저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으로서도 신의주(新義州)에서 만철부속지로보내는 통상우편물의 항공(航空)료금과 관동주로 (대련大連)을 제외한)가는 항공우편료금이 상당히저렴하게되고 또일만국사이에 새로 집금우편과 료금별납(料金別納)철도설치하야리용의리익은 종래에 비교하야 훨신증가될것이다

行商하며窃盜

...진되게되엿다

일일오전여서시십분쯤 부내삼...

在滿朝鮮人罹災者救濟

原料補助·食糧供給

금년재만 조선인의수해기타리재자는 상당히다수에 달하는데 그동안 만주국에서 의선공부구제는 하얏스나 아직도 구제를요하는자도 만흐므로 총독부에서는 안동성안동현 봉성현(安東省安東縣鳳城縣)하 수해리재자에대하야 사천원으로써 가마니와 색기의원료를 보조하야 그일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도록하얏스며 봉천(奉天)、철령(鐵嶺)、개원(開原)、료양(遼陽)、영구(營口)등지의수해리재민과 통료(通遼)의 한해(旱害)리재자에대하야는 봉천총령사원을 지출하야 식량을 연결할동안시에 가마니와색기의원료대금을 보조하얏다

職工虐待한 雇主에體刑求刑

심리전(里見)검사판여미테 열리엿다 피고는 지난칠월이십일오전 두시쯤에 부내약초정(若草町)사십번지 애국(愛國)『네온』상회 공사장에서직공 리밀석(李密錫)(三)두명이 폭사하얏다고 심하게재촉하는데 홍분되야 엽산병울들고 박홍곤에게 떠리여 그의두눈섭게와 그엽헤선 리밀석의 외인눈섭게를 석어들어가개 하엿다는것인데 검사는 이가든범죄에 집행유예는 부당하다로 엄벌할 필요가잇다하야 징역팔월의 체형을구형하엿다

揮發油가爆發

【江陵】 회발유(揮發油)가 폭발하야 중경상자두사람을내엿다 지난십팔일오전아홉시경강릉읍송정리(江陵邑松亭里)발동기정미업자심창섭(沈昌燮)(三〇)의집 최창집(崔昌集)(三五)의두사람은 정미를하려고 석유발동기의발화가 잘되지안음으로 기게의고장으로 인하여엿든지평시와가티발화가 잘되지안음으로 회발유를 탱크에주입하려든 찰나에 여메회로불에인화되야 돌연 일대폭음을 내이면서 회발유초롱이폭발하야 전신에 불쳐지가 되엿을 동내사람들이 달려들어 간신히 불은꺼스나 안면에는특히 만흔 화상(火傷)을 입엇슴으로 즉시 도립강릉의원 박외과장(朴外科長)의 응급수당을밧고 이어 도립의원에입원가료중인데 심창섭은 전치삼주 최창집은 전치 이주간을 요하리라하는바 요집은 갓동에서 경미를하려고 발동기의 사용이접차 만혀 가려는이즘 특히 폭발성이 희흔 만발유사용에 잇서서는 각자 각별한주의를 요할것이라한다

타이거、스팔타 高麗等이各勝

白燕老將들의活躍도異彩! 今夜에普、延戰擧行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第十一回靑年團籠球聯盟戰第一日은 昨一日午後六時半부터 鐘路靑年會館內『코-트』에서 열리엇다 이날 第一次戰에는 이 聯盟戰에 처음으로 出場한 佛專과 道高出身을 中心으로 編成된 타이거와의 對戰을 타이거-軍의一方的 勝利로 마치고 第二次戰의 씽거對高麗 組織된 씽거戰은 高麗軍이 大勝하엿다 最終으로 延禧은 網羅한 白燕對스팔타戰은 白燕의 老將들의 活躍猛烈하엿스나 勁健한 스팔타軍에게 敗하엿다 그리고 今二日 午後七時廿分에는 待望의 普專對延專의 第一回戰이 열릴터이다

昨夜開幕된 靑年團籠球聯盟戰光景

타이거66 (24 42 / 9 4) 13 佛專

【第一次戰】二部의 타이거對佛專戰은 同六時半부터 金振秀、李恩遠兩氏審判아래 開催된바 타이거의 一方的게임으로 始終되여 結局六十六對十三으로 佛專을 물리치고 타이거軍이 大勝하엿다

反	後	前	【타이거】		【佛專】	前	後	反
2	9	16	姜日東	F	李敬雨	2	0	0
0	8	16	全鼎鎬	F	趙再賴	0	4	0
				F	高鳳龍	0	0	0
1	4	4	陳永得	C	李永根	2	5	1
0	1	2	李潤鎭	G	許燮	0	0	1
1	0	0	柳永一	G				
0	2	4	金鶴權	G				
0	0	0	金春根	G	金善福	0	0	1
4	24	42				4	9	3

高麗76 (38 38 / 18 10) 28 씽거

【第二次戰】二部의 高麗對씽거戰은 同七時二十分부터 田盛鎬、李恩遠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高麗軍의 壓倒的優勢를 보이드니 結局七十六對二十八로 씽거軍이 大敗하엿다

反	後	前	【高麗】		【씽거】	前	後	反
2	11	18	尹相變	F	張世永	2	0	2
0	0	11	尹正變	F	朴來洪	4	4	0
0	14	0	金在春	F				
0	0	0	兪仁濟	C	朴魯恩	2	4	1
1	5	0	權重福	C				
0	0	4	鄭福學	G	李世亮	2	2	3
0	2	1	林用淳	G				
0	6	4	曹東煥	G	金鳳源	0	8	3
3	38	38				10	18	9

스팔타49 (27 22 / 22 14) 36 白燕

【第三次戰】二部의 白燕對스팔타戰은 同八時十分부터 金振秀、李恩遠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前半戰에 스팔타軍二十二對十四로 『리-드』한채 前半戰을마치고 後半戰에 드러가 白燕軍追及하엿스나...

反	後	前	【白燕】		【스팔타】	前	後	反
0	10	2	孫德俊	F	孫彼得	4	4	1
				F	金鋼岳	0	8	0
0	4	7	洪文吉	F	金谷武	10	5	3
1	0	0	張東旭	C	金化泳	4	0	0
4	0	0	金日培	C				
0	0	3	李性求	G	宋基宇	4	4	0
				G	南命鎬	0	2	0
0	2	0	玄正柱	G	李文鎬	0	0	1
3	6	2	丁相允	G	安明健	0	4	0
7	22	14				22	27	5

烈하야 十一分에는 四十五對三十二로 十三分에는 四十九對三十六으로 肉迫하엿스나 其後兩軍得點업시 結局四十九對三十六으로 스팔타軍이 快勝하엿다

全日本綜合籠球 十四팀推薦

昭和十三年度 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는 明春一月五日부터 五日間에 亘하야 東京市一橋國民體育館室內코-트에서 擧行할터인바 이에出場하는 男子팀은 從來에 關東、關西兩學生리-그의覇者와 前年度優勝팀을 推薦하고 各地方豫選의 優勝팀을加하야行하든것을 今年度부터는더욱優秀팀들의 出場의 機會를주어技術向上의 充實을 期待하기 위하야 推薦팀으로는 全日本的强팀을網羅하기로되여 먼저關東은學生리-그第一部早大、帝大、文理、明大、商大等六校와 第二部優勝팀慶應、그리고 神宮大會의覇者BKW、關西에서는 學生리-그의上位京大、關大、甲南高校等三팀、東北에서는 東北帝大、朝鮮은 延專、普專兩팀으로 總數十四팀을 無條件으로 推薦하고 여기에一般各地豫選優勝팀을 追加하야 擧行하기로되엿다 女子部는 從前대로 前年度의覇者京都府立一女를 推薦하기로 되엿다

東京올림픽補助費 七十五萬圓을計上

올림픽東京大會의 補助費에對하야는 時局關係로憂慮中이든바 지난三十日에열린 豫算閣議에서 近近新設되는 保健社會省의 明年度 豫算中에 東京大會補助費七十五萬圓을 計上하야 日本스포-츠界는 明朗한氣分이 떠돌고잇다한다

今日의運動

◇籠球=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第十一回 靑年團籠球聯盟戰第二日씽거對스파르타(午後七時二十分)라이거對白燕(午後八時十分)佛專對高麗(午後九時)以上鐘路靑年會室內『코-트』(揚內整理費十錢)

ラシヤオーバー大奉仕
オーバー寸法 前丈三尺八寸・三尺九寸・三尺一寸
裏付・紺色と黑色あり
二六號 片前型 一着 金八圓六十五錢
兩前型 一着 金八圓六十錢

高級ラクダオーバー 紺と黑色あり
二八號 片前型 一着 金十四圓八十錢
兩前型 一着 金十五圓五十錢

紳士用柄兩前オーバー
色合は 茶・黑色 背中年向
三二號 兩前型柄オーバー 一着 金十三圓九十錢

朝鮮オーバー大見切品
十二圓五十錢賣を特に
三五號 特製 ベロアー 一着 金八圓五十錢 紺色に限る 二尺九寸・三尺

ウーステツト三ツ揃背廣服
寸法は大・中・小型あり 特大型一圓高
色合 茶紺・背中年向 柄は斜線又は縞柄
一〇號 三ツ揃 一着 金十三圓八十錢

星印 本毛厚サージ三ツ揃背廣服
別仕立最高シルバー裏付 黑・紺あり
一七號 三ツ揃 一着 金十八圓八十錢

紳士 スポーテツクス三ツ揃背廣服
色は 茶・鼠・紺色あり 萬人向の無地柄
二二號 三ツ揃 一着 金二十圓五十錢

特製黑セル詰衿上下服

玉錦絲コール天特製學生服
仕立入念裏付の金ボタン付なり
十九號 詰衿上下組 一着 金六圓
廿二號 詰衿上下 一着 金八圓五十錢
金ボタン付長ズボン付上下一着
尺一 一年用 二圓九十五錢 尺五 六年用 二圓八十五錢
尺二 二年用 二圓四十錢 中學生用詰衿小型 三圓四十錢
尺三 三年用 二圓四十錢 同 中型 三圓七十錢
尺四 五年用 二圓六十錢 同 大型 四圓

玉錦コール天作業服

青年團服と軍靴の奉仕特賣
寸法は大・中・小共に同價
特價 上下服 一着 金三圓八十錢
長乘馬ズボン付 二十錢高
國防色スレン生地 大折詰ダブル衿 同 中 値小衿衿衿
特製團服 一着 二圓四十錢
コンノート型帽子 一個 三十錢
軍人型帽子 一個 四十三錢
戰鬪帽子 一個 四十三錢
ゲートル 一打 三圓五十錢
特製訓練靴 耐久完全無敵品 一足 四圓十錢
文數は十文より十二文迄同値

名古屋千種區 今池電停前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御注文は葉書にて、送料は御負擔
振替名古屋二八九番

人爲的抑壓을反擊 物價再蠢動開始

今春과가티는에띠이지안흐나 微妙深刻한昂騰步調

事變勃發以來 아무소리업는 物價도 最近 다시 蠢動을 開始하야 모다 上漲步調를 取하게되엿다 表面的으로는 比較的冷靜한 을 지키에 統治하고잇기때문에 今春과가티 狂目을 끌지안흐나 內面的으로는 자못深刻한 動作을보이어 微妙한 움지김을 나타내고잇다 卽 今年一月以來의 物價의움지김을 四期에分하야보면 第一期는 四月을 頂點으로하는 刮目할만한 物價暴騰時代일것이다 이時期는 準戰時體制의强化 暴利取締法의 第四次强化 英米의 物價高等이 呼應하야 全面的物價奔騰을 誘致하야 드되어政府的 社會的問題로 擴大視되게되엿고 第二期는 政府의 物價抑壓政策에 奇成되어 投機, 假需要가 그림자를 감추고 一旦 安定을보인 支那事變勃發前까지이다 第三期는 支那事變勃發부터 新暴利取締令의發動 重要商品에對한 消費節約配給統制、公定價格의制定、主要商品의 在荷調査等物價暴騰取締策은 益益本格的方向으로 向하야 邁行하야 마치내 事變그自體에依한 物價의 飛躍的騰貴를 防止하려하얏다 此等의 諸對策은 一旦奏效하야 事變의 擴大進展에도 不拘하고 物價는 低價的步調를 取하야 오히려 緊張的反落을 示하며三個月을 經過하얏다 勿論이러한 現象은 第二期末頃부터 나타난 海外物價暴落의 도움이 큰바 어는右對策과 相俟하야 効果를 거두엇다 此間의 經過를 數字的으로 示하면 如左하다

	日銀都賣	三菱研究所
一月	二三二·三	一八四·五
二月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五月	二四一·〇	一九四·八
六月	二三八·五	一八八·〇
七月	二三六·九	一八八·三
八月	二二四·七	一八八·九
九月	二三八·五	一八七·六
十月	二三六·五	一八九·六
十一月中旬	—	一八九·一

그리고 海外物價의 動向으로 米國(무ー디)英國(로이타ー)의 商品指數를보면四月五月의 二三八·二(米國)二〇三·二(英國)을 最高로十一月二十五日에는 一四四·六及一四九·三〇으로써三分(米國)二割六分(英國)가량 低落을 示하엿다。 第四期는 十一月中旬 以降보는 現象으로 事變下의 輸入統制 價格統制 消費節約等의 諸統制의 抑壓도 反發하고 上向하려는 氣勢를 示하게되엇다 그러나 물에 보비와가튼 急激的步調 或은 投機 假需要的가튼 人氣는 此期에는 나타나지안는다 어데까지던지 實質的 且堅實한 態勢로 그起伏도 單調롭지안타 이는 物資供給의不足 實需의 旺盛이에는 人爲的物價抑壓策도 엇지할수업다는 것을 示하는것일것이다 따라 最近의 海外物價는供給過剩의 現實化에 依하야激落을 示하고잇슬지나 日本으로서는 特殊事情下에 獨自의 움지김을 展開하고 또現在의 統制政策의 强化徹底한 實行手段을 促하려하고잇다 例하면 配給統制도 現在와如한 商權的偏在在荷是正이라든가 民間의 配給機關의 整備라든가하는 方法에서나아가 國家의 配給에對한能動的干涉으로부터 公定價格의擴大로될것이 豫想된다

重要商品別動向

益高難免

鋼材

一鐵鋼 日本鋼材販賣聯合會는 十月下旬設立되엇는바 어데부터 市中市勢는 又復昂騰步調로 轉하얏다 右는 三個月間 投賣許容을은 市中의 需要가 다시 出動한것 問屋의 在荷는 不足되는때이므로 小口需要라도 市勢를 움지기게된것 메이커ー側의 引渡는 事變의 長期發展化으로 益益不圓滑하야지고 特히 國策會社의 商品은 거이絕望으로된것 이傾向은 自然아옷는싸이더ー와 仲買業者로 轉치안흘수업다하야 理的으로 市價昂騰의 要因이될것等이다 그리고 大問屋은 鐵의 商品으로서보다 國策的으로 重要하다는 것으로 各自自重을 協議하얏스나 中小問屋은 漸次 實益態度를 取하야 市價를 騰貴以上强硬히 하고잇슴은 看過할수업는 現象이다 그와同時에 市勢急騰이 對社會的으로 影響하는것을 考慮하야 稍히 自然的且部分的으로 行動을示하고잇는것等 相當히 注目할만하다 例하면 丸角鋼이 騰貴되면 다음은 型物鋼에서 鐵板으로 人氣를 移行시키어 한꺼번에 騰貴시키지 안흐려한다 十一月까지의 騰勢를보면 如左하다

(單位圓)

	現在	建價	比較高
丸鋼베ー스	二三〇	一九五	三五
角鋼베ー스	二三五	二〇〇	三五
平鋼베ー스	二三五	二〇〇	三五
조이스트	二三〇	二〇〇	三〇
찬넬	二四〇	二三〇	一〇
鐵板一·六耗	三五〇	—	—
同 三·二耗	三三〇	—	[illegible]

이리하야 人氣가 再出한 市場은 十二月에 入하야서도 依然强調를 持續하고잇슴에는 틀림이업스나 鐵板과如히 急騰한部門에는 相當히 訂正을볼것이다 그리고 丸S製品이라고 부르는 日鐵製品 丸鋼五〇ー二〇〇耗角鋼一二ー一〇〇耗 앙울四分ー八分厚 조이스트、찬넬 全자이즈等은 益益飢饉市勢를 낼것이며 丸角鋼、平鋼、鐵板과如한 普通싸이즈物도 採算高로 招來되는 市價昂騰은 不可避의 情勢이다 이를 抑押하는것은 日鐵聯의配給機能如何일것이다

空前高價

銅

一最近의 需要旺盛은 銅市勢의 自由를 剝奪하엿다 卽 內地銅市勢는 水曜會가 發表하는 紐育發합부둑向輸出市勢를 基礎로 換算하야 市中은 이에五圓內外의 手數料를加하야 販賣하고잇섯다 그런데米國產銅業界는 昨年來의 需要增加에應하야 今年二月 減產協定을 破棄하게되여 市勢도 합부둑 向輸出價格은 十七仙五五(水曜會建價百五十四圓)로 幾十年만의 新高價를 내엿든바 이때(三月末)을 頂點으로 米國景氣의 惡化 增產人氣의 釀成 消費의 減退等으로 依然十一月二十五日에는 九仙八〇으로 轉落하얏다 이市勢에依하면 換算九十六、三圓에 該當하는바 內地는 (一)軍需要의 旺盛 (二)産業管理의 强化로 그곳과 同一行動을 取함은 漸次 困難하게되어 드되어 十月下旬에는 換算目標를 米國國內銅市勢에依하기로되어 市中市勢와 幾分이라도 調節하려하얏스나 十一月六日 又復 그國內銅建價가 一仙가량 引下되게되어 드되어獨自의 建價發表를 斷行하야 百十圓으로 發表한대로 据置하야 現在에 이르럿다 市中은 右情勢를 反映하야 三月以來 水曜會建價와의 間隔을 漸次擴大하야現在에는 百七十圓으로 建價를 六十圓가량이나 上廻하고米國輸出銅市勢의 換算보다 八十圓가량이나 上價에잇다 이는거이有史以來의 高價로 如何히市中이 飢饉狀態를 呈하고잇는가가 判明될것이다

飢饉市勢

白金物

錫 鉛 亞鉛 닉켈 아루미늄 안치모니等의白金物은 銅 鐵에 떠러지지안케 軍需的意義를 갓고잇는바 此等商品의 거의大部分은 輸入에 仰하지안흐면안되는 狀態이다 그런데 事變以來 一層强化된 輸入統制는 右商品의 需給狀態를 一層히 混亂케하야 市中은 飢饉以上의深刻한 爭奪戰을 惹起하고잇다 卽 倫敦市勢는 各品減產協定의 撤廢 增產傾向의 人氣를 反映하야 反落市勢까지 내이고잇는데 日本市中 市勢는 이傾向과는 달리서 거의 市勢가 서지안는 相對取引이다 그리고 게되엿다。

需要益增

石炭

石炭은 依然히 活潑한 動向을 보이고잇다 石炭界의 消長을示하는全國府炭高는 七月의 百萬噸突破를 絕頂으로하고 八月은 九十六萬八千噸、九月은 다시 減少하야 九十二萬七千噸으로되엇다 九月以降은 今後 商工省의 命令으로 發表되지안케 되기때문에 未分明하나 더욱 減少되엇스리라고 생각된다 需要는 增加할예정이므로 供給不足이 豫想되에서 九月廿七日의 理事會에서는 今年下期에 對하야 百十一萬噸의 增產을하기로 決定하얏다 또 從來 各社配給數量의 制限分에 對하야 一噸當一圓의 罰金을 課하든것을 撤廢하고 增產獎勵에 拍車를加하고잇는데 果然 計劃대로될지 안될지는 疑問이다 優先 第一로 생각되는것은 坑夫의 不足이 最大의 原因이 되어잇다 炭價는 七月에 比하야 一噸當 平均二圓五十錢가량의 騰貴로 專히 運賃高 工賃高에 依하는것인데 需要의 觀測은 今後더욱 增長하리라고 생각되므로 來春의 價格變更期에는 炭價引上은 必至로 보인다。

再活豫想

木材

木材는 두方面으로 觀察할 必要가잇다 一은 米材輸入制限、二는 時局用材의注入이다 現在의 材木界는 이를 에刺戟되어 活況을 呈하고잇다고 볼수잇다。먼저 米材인데 이 代表格인 大中角은 卅四圓五十錢으로부터 七十錢으로 八月末以來五圓五十錢 가량의 大暴騰을 示하고 一部輸入人氣中에잇스면서 더욱 高値를 繼續하고잇다 右는十月末 京濱스톡이三千五百萬BM으로 達月千萬BM程度의 理想的減少高를 示하고잇는것, 노말스톡五千萬BM의維持는 困難하게되고 그우에 今年中은 輸入許可가 困難한것、北洋材 其他 代用材의 出廻難等이 市勢에 나타난것이다 이밧 米材高는 市勢를 리드하는 材料이기만 他材에도 影響되고特히 各地로부터의 輸送難과 產地所持商人의 强硬態度는 이에 拍車를 加하야 蝦夷松丸材等이 모두 三、五十圓가량 暴騰하얏다 다음 時局用材로서는 板割 小角等의 暴騰이 顯著하다 卽標準品인 秋田板割은(厚四ー六分幅五寸長二間) 十四圓으로 事變直前 三圓五十錢가량 同小角(三寸角ー四寸角) 十二圓乃至十三圓으로 二、三圓가량各其暴騰하얏다 그리고 一般材는 建築消費節約에만나 市勢는 그리조치못하나 他材高에 牽引되어 下降氣配도업시 保合되고잇다 大體 木材로서는 一旦高價를 現出하야 이近傍을保合場面으로 보고잇는데 時局材의 第二次 第三次注入에 依하야서는 再次活氣잇는 市勢를展開하게될것이다 그리고 一般으로는 建築消費對策에依한人氣沈滯라는 消極的 場面으로 부터 時局好轉에 依한 積極的場面으로 强硬히 牽引되고잇는 模樣이다

目前鈍調

고무

十月中旬 暴利取締令의 發動을 본 고무市勢는 約一個月半으로漸次 取引方法을 改善하야 市勢復活을 보앗다 二十六日은 現物六十八錢이오 十二月五十三錢으로 노미날當時의 標準價格과 比較하면 現物은 四錢가량의 低價에 該當한다 今回의 法發動은海外市勢에 比較하야 非常한 割高를 보인點에잇는데 그原因을 探究하면

一、英米軍需景氣의 擴張에依하야 고무市勢도 三月末에는紐育廿七仙、倫敦十三片十六分七의 高價(生產費의約三倍)를내이기때문에 이때를부터 猛烈한 投機買가 생겻다

二、그後 英米景氣의 挫折과國際고무減產協定委員會의 繼續的減產率緩和의 發表로 人氣가 動搖하야 市勢는 漸次低價로 轉하얏다。

三、그러나 日本內地는 이때즘부터輸入制限에 强化되어 供給不足의 狀態로 되엇는바所持側은現在의 市勢(當時六十五、六錢)가량所持當時의 市勢(八十錢가량)넘무도 差異가잇기때문에賣應치안코 그때문에 內地市勢는海外에 比하야 十錢以上의 割高를 보이게되엿다。

그러나 이 非常時市勢도 商工省의 勸獎과 業者의 努力에 依하야 解消되고 고무原料의配給統制方法을 確立하야 十二月一日부터 實施되게되엇다 今後는 絹絲와가티 最高價格制에依하야 取引될모양이므로 市勢도 國際水準點에 安定하게될것이다 따라서 目前의目標는 十二月限이 보이고잇는 五十三錢이 妥當하고 現物도 幾分의 弱含는 難免할것이다 그리고 今後는 海外如何에 달녓는바 그海外市勢도 期待薄의 狀態에잇스므로 當分 鈍調한人氣로 推移하리라고 觀測된다

春高人氣

肥料

肥料는 目下不需要期에 잇스나 市勢는 모다强硬하야 政府의 統制策을 無關하고잇는 現狀이다 그 原因은 (一)海外로부터의 原料輸入困難 (二)船舶不足과 運賃高에 依한 原料採算高 (三)生產能力의 停頓 (四)農村購買力의 增加等과 勞力能力低下에 依한施肥量의 增加豫想等에 基하는것으로 更히 春高人氣를 내이고잇는 模樣인데 品種別로 이를 보면 如左하다

▲硫安=今肥料年度生產高를 百五六十萬噸 消費를 百七十萬噸으로보아 約二十萬噸의 供給不足이 되어 政府는 그對策으로 이미 十五萬噸의 輸入을 企圖하고 이에對하야 百四十萬噸의保留를 興하엿스나 아직 五萬噸가량 不足할것으로 보고 農林省은 猛烈히 追加를 運動中에 이다 그러나 市場은 依然히 需要期의 品不足과 會社의自重과 年內賣餘力이업는것 等으로 强調를 呈하야 現在現物三圓九十六錢先物不足八錢으로 來春物公定價格을 三十三錢으로부터 三十五錢가량(一月對比)이나 上廻하고잇다 目前은 共販設立에 依하야 配給統制가 問題를 重視하야 人氣가 그리움지기지안는다

▲加里=昨年度는 約四千萬圓(二十五、七萬)가량의 輸入이잇섯스나 今年度는 이를 約四分之一로 縮減할方針이다 따라 硫酸加里는 低價에 期待할수업다

▲過燐酸=昨年度消費高의 輸入을 七十五萬噸으로 豫定하얏給源不足으로 輸入이 選擇不達하는狀態이다 現在의 小賣一圓八十五錢은 二、三年前의 低價의 約倍로되엇는데 業界의事情이 非常時로 暴騰하는限 低價는업슬것이다

▲石灰窒素=現在의 生產能力은 三十萬噸或은 卅五萬噸으로되는바 昨年度는 二十三萬噸의使用量을 示하얏슬뿐이다 이非常時의 肥料界에잇서서 餘裕가 잇는것은 이것뿐이라하야도過言이아니데 使用法이 困難한것과 元肥만으로 需要範圍가 限定되어잇는 欠點이잇다 市勢는 販賣價格水準을 維持하야갈것이다

▲豆粕=肥料로서는 넘우나 高價이다 將來는 配合肥로서使用됫는 特殊方面에 使用되게 될것으로 單肥로서는 妙味가 업다 市勢는 波瀾性를 內包하야 一進一退의 人氣이다

保合圈內

製粉小麥

製粉及小麥市勢는 事變勃發當時多少緊張한 人氣를示하얏스나 玆一個月동안 꼼작도안코大體로保合圈內로彷徨코잇다 이는 戰時下에잇서서第一로穀物에잇는 食料品의하나로서는 特別한觀이잇는바 그理由는如左하다

一、十二年度內地小麥은 一千萬石에갓까운 增收記錄을 示하얏는데 農會方面의統制가 効果를나타내어 各地가모다 平均維持하기때문에 價格과가티 出廻底市勢를示치안코 小麥、製粉이모다 相當히 高價(米價에比하야)를 示하얏다

一、內地麥界의 指標가되는米國小麥市勢는 歐洲의 戰氣一掃 米國市場의 惡化、三六年度의 非常한增收、積付限期增加等으로 去三月末日의 高値보다三割八分이나 落落을 示한것과 內地小麥과 가장價格이 비슷한 滿洲小麥은 빈르리아八圓六十錢으로 續落步調를 뵈하고잇는것

一、北支市場에로의輸出商談도杜絕된 狀態로 이에依한 人氣의 反動과 內地消費側의 冷靜한態度로서 買付치안는것

一、製粉會社는 決算關係로 小麥은 買擔購하고 製品은 積極的으로販賣態度를 取하기때문에 市場이 軟化된것

一、每月의例로 月末에는 浮動玉이 顯著하야 市勢를 弱하게하고잇는데 去月에도 이傾向이 顯著된 點等이다

따라서 市場自體는 이保合市勢에疲勞한 觀이잇스나 그럿다고 弱材料에 呼應하야 下押하는氣配도업고 오로지 强材料만잇스면 反騰하려는 氣配가 强하게 潛在하야잇다 그러므로 目前도 (一)北支輸出의 打開 (二)決算後의會社의原料政策 (三)外麥米價의動向에따라 漸高步調를 거듭하리라고 觀測되나 이러한狀況을從來와가튼 單純한것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小麥十圓 製粉五圓臺는 目標市勢로 될것이 아닌가한다

列國의對支政策 利害區區·動向不一

支那問題概觀【八】 溫樂中

米國 米國은 英國과달리서 支那에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잇지만은 英國과如히 目前의 急한問題는아니다 第一로 英國은 方今 支那事變에잇서서 그投資에 至大한利害關係를가지고잇스나 米國은 그러큰問題는업다 對支貿易等도 米國의 總貿易額에 比하면 그리큰 問題는아니다 오히려 對日貿易이 더重要한셈이다 그럼으로써 眼下의 問題는아니다。그러나 巨大한 剩餘의資本의投資場과 世界最大의 消費市場인 支那에對한關心은 決코적지안타。이러하기때문으로 太平洋에絕大한 艦隊를 維持하려고하는것이며 十六年間이나 國交斷絕한 蘇聯과도 國交를 다게된것이다 그러나 英國의 權益을 擁護하기 爲하야 自國의武力을 使用하려고 하지는안을것이다 도로혀 日英兩國이 서로다투는것은 彼等米國人의 願하는바일른지 모른다 米國은 英國의 부르지즘에 귀를기우리는것이아니다。支那에잇서서 日本의 支配力이어느 程度에 미치는가에잇슬것이다。 이點에 잇서서 廣田外相의 活躍如何에 依해서는 米國으로하여금英國의擴鬪에 道德的聲援以上 아모것도 못엇게할수가잇다。

蘇聯 蘇聯은 自國의國內의 必要로 말미아마 對外平和를 必要로하는 現狀維持國의 하나이다。이點에잇서서世界大戰의勝利에依하야 어든有利한地位를 維持하려는 現狀維持國의英佛과 一致한다。西歐에잇서서 英佛과一致하는同時에支那에잇서서도 蘇聯은 日本의 進出을 가장두려워하는나라다 이點에잇서서 日本의 進出을 制限하려는 英國과共同步調를 取할것이다 그러나 蘇聯이지라도 英國을爲하야 自國의武力을 使用하지는안흘것이다。뿐만아니라 이번日支紛爭에잇서서 가장큰打擊을받는것은 英帝國主義의 走狗의役割을하는 浙江財閥이므로 此限에잇서서는 日蘇對立을 激化하지안는다。뿐만아니라 南京政府를 積極的으로 援助함으로써 南京政權이 英國에보다도 蘇聯에더一層 密接하게되면 英國의猜疑를 깁게하는同時에 英國의 對日抗爭을 妨害하게된다 日英抗爭을 彼蘇聯은 自國에 有利하다고본다。蘇聯은 이러한力關係를 考慮하면의對支援助가아닌가한다。蘇聯은 將來를 警戒할것이고 過度의 今對支武力援助가 英國의 猜疑도 말미아마 日英衝突을 가름함을 두려워 할것임으로 當局의 日蘇武力衝突은 업스리라고 생각된다。그러나 支那事變의 必然的結果는 蘇聯에 一個의 有利한 結果를 맺게된다。新疆外蒙의 赤化勢力을 一層强化하게되며 陝北共軍의 武裝을 强化하고 어느程度의 (對支援助의形式下에) 援助를할수가잇는同時에 中央政府에 進出하야南京政府의 浙江財閥의獨裁政權으로부터 國民政府에의轉換을 圖謀할수가 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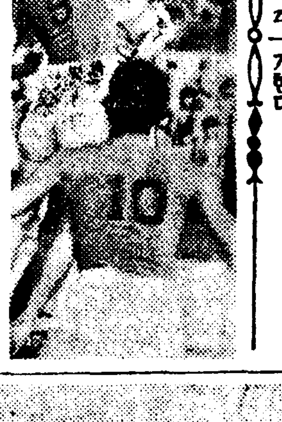
佛國 佛國은 現狀維持國의 立場과 그의 極東에서의 利害關係로서 英國에 追隨할것으로 보인다。

獨伊 獨伊는 英國의 策動과 自國의 利害關係로 보아 自國의 立場을 確定할것이나 伊國의 地中海에서의 英國과의 對立과 西班牙問題로 中心으로 伊英關係의 惡化는 伊太利로하여금 日獨防共協定에 參加하게 까지 이른것이다。獨逸에 잇서서도 獨逸의 蘇聯에對한 反蘇的利害問題 現狀維持國인 英佛에 對한 不滿等은 對英國에 잇서 西歐의 二大國을 日本의 日支問題解決에 잇서 日本의 主張에 共同步調를 取하게할수잇다고 잇는다。

要컨댄 當面의 日本의 敵은 英國일것이다。日本은外交上多難을 豫想하면서도 活動할分野가 多分이 잇는만큼 廣田外交의 活動에 企待하는바만흔것이다 十一月十六日稿了

全平壤籠球리그觀戰後記

❷ 平壤 姜瑨求



基礎技術 全般으로와 前年에比하야 基礎技術이不足한感을 만히 느끼엇다 相當한 實力을 가진팀에도 二三人의 劣等技術者가잇는것을 發見하엿다 今年聯盟戰은 戰法에 偏心하는代身에 基礎技術에 等閑하는듯하엿다。더욱 甚한것은 手足活用動作에對한 個人技術이不足하엿스며 파쓰의速力과 正確을缺한것이다。

經驗과年齡의 必要 今番聯盟戰에가장 實感되는바는 經驗과年齡으로부터 修練된膽大한 精神的訓練이絕對必要함을 더욱늣기엿다 平壤B 崇商A選手들의 競技態度는 比較的沈着하엿스나 崇實A、光高選手들은 競技態度는 瞬間에잇서서 觀戰者와 應援團歡呼에 精神狀態에動搖를바다 恒常 唐慌하고 焦燥하는動作은 崇實 乃至光高敗北를 不能케하는 重大原因이되엇다

作戰의絕對必要 聯盟戰始作第一日에 優勝第一候補崇商A팀이 崇實B팀에게 慘敗當함을 보고 參加한全聯盟選手들은 모다精神的으로 崇實A B戰法攪亂에 苦心하고 總攻擊을集中하게되엿다 聯盟戰初와 終에 十字型『엑텍』만을 專用하든 崇實의作戰은 十餘日競技進行中에 結局陣營에全體의 攪亂을가져고말엇다 崇商A가崇實A와의 對戰에 崇商軍이 攻擊後方에 二人이 防禦하는 相助『파쓰』하든中에 崇實『쌔론』의『엑텍』을完全히 脫出한것은最良의 十字『엑텍』避策이라고 認定한다 또 平壤B과崇實B와의 對戰에 平壤軍이는十字『엑텍』隊形의 弱點이 兩隅側에잇는것을發見하고 兩隅側에 二人競技者를同時에 配置하고 攻擊한것은 가장至當한 作戰이다 또光高와崇實A의 對戰에 光高의 崇商成功한作戰(崇實B와對戰)과平壤軍이 功作戰(崇實A對戰)을取擇하야잇는 易守易攻한것은 賢明한策戰이다 그럼으로 崇實의 聯盟戰終末의作戰은 어찌되엇든가하면 側面『엑텍』(『포云』『화이드』)에서 給作하는 四角型及三角型『엑텍』을 專用하게되엿다가 自然 閉幕되고만것이다 今番聯盟戰은 오로지 十字型『엑텍』實驗場이되고 말엇다 實驗結果를論定하면 圓의四分之一인 狹小한地域에서 가장有利하고 確實性이잇게 『엑텍』할수잇는 四角型『엑텍』과 三角型『엑텍』을主體로하고 十字型『엑텍』은 正面突擊戰으로 臨時臨時使用하는것이 有利하리라고 생각하는바이다

失敗의所得 失敗는 成功의母이다 崇商A여! 崇實B에게慘敗하고무엇을 어덧든가? 崇實A를 『엑텍』 避策法을 發見하야 崇實A를 이기지아니하엿는가

平壤B여! 崇實A에게 慘敗하고 무엇을 어덧는가? 十字型『엑텍』에 對한 攻擊法을 發見하야 崇實B와 崇商A를 全勝하게 이기지아니하엿는가

光高여!!崇實B의게 慘敗하고 무엇을 어덧는가? 作戰의苦心으로 崇實A에게十字型『엑텍』을 完全히 失敗케하고 苦戰의 一擊을加하지아니하엿는가

崇實A여!!崇商A에게 失敗하고무엇을배웟는가?

崇實B여!!平壤에게慘敗하고 무엇을배웟는가? 『엑텍』 攻勢의 缺陷과 十字型『엑텍』을 競技全體를通하야 專用할戰術이아닌것을 깨닷지아니하엿는가

西洋팀이여! 崇商A 崇實A B 平壤에게 慘敗하고 무엇을 어덧는가? 不完全한戰法과 還曉한動作을 깨닷지아니하엿는가

平壤팀이여! 崇商B여! 그대들은 本聯盟戰에 냉뷸이만흐던 得을어덧을것이다 反省하고決心하고 奮起할지어다 小敗는小成이오 大敗는大成이란 眞理를確信하고 堅忍不拔의決心으로 남보다 나흔實力을 養成하기에猛進할지어다 (完)

事變畫報

(上右) 前進에前進을 繼續하는 皇軍部隊(梅李鎭附近)
(上左) 크리ー크를건너 無錫으로追擊前進
(下右) 劉河크리ー크를건너 大倉으로 進擊하는○○部隊
(下中) 軍犬도活躍하야 殘敵掃蕩中의 皇軍勇士(上海前線)
(下左) 我空軍의爆擊으로 虞山砲臺破(蘇州)

地方論壇

海州有志에게

海州港은 黃海道行政經濟의 中心地이며 大海州의 關門이다 往昔에는 閑寂한 一個漁村이엇스나 朝鮮三大漁場의 하나인 延坪島를 앞에두고 背後에는 廣漠한 沃土와 豐富한 鑛産의 大資源을 抱有한 好條件을 가저 一躍西鮮唯一의 貿易港으로 面目을 一新한것은 世人이 共認하는바이며 急速히 增加하는 人口와 共히 나날이 늘어가는 學齡兒童中 小數人의 子弟를 除한 多數兒童은 十餘里나 되는 海州市內 學校에 通學하는 實情이다 …… 明日의 指導的人物을 如何히 …… 信聖學院의 認可가 未決된 …… 우리들의 子孫을 우리의손으로 敎育식힘이 當然한일이고 一般住民인우리의 共通한責任과義務이다 何必方氏個人에게만 그責任과義務를 轉嫁시킬것이냐 …… 마지안는바이다

(海州支局 一記者)

咸南道特産馬鈴薯 酒精原料로有望

道內에서 만年産七萬石可能 道農務課서 銳意考究

【咸興】함남의명산 마령서(馬鈴薯)는 년산륙천만관의 생산고를 뵈우고잇는대 종래 마령서의소비는 모두 식료, 전분(澱粉)등으로 리용되고잇는데 도당국에서는 이것의합리적리용으로 결국 상어계의총아인 무수주정(無水酒精)의원료로 리용하려고 하는것을 고구하고잇다고한다 현재 이마령서의가격은 일관당륙전가량되는대 이것을좀더 재배장려하야 그수확고를노피면 일관당오전오리 양일전은 그가격이 내릴것이라고하며 이러케가격이 내리면은 무수주정의원료로도 넉넉히채산이설수잇다고한다 마령서는 지금도 고지대의특산으로서 그재배를장려하고잇스나 좀더적극적으로장려하야 수확고를올리면 함남에서만 이것을원료로하는 무수주정칠만석은 생산할수잇스리라고하는대 이러케되면 함남은일약 무수주정의 원산지로 등장될것이다

初等校長會議 一月十七日부터

【咸興】함남도의 초등학교교장회의는 오는일월십칠일부터 삼일간 개최키로내정되엿다 장소는 함흥신흥공회당으로 예정하고잇다

勞賃傳票僞造犯 江陵支廳公判에

【江陵】큰공사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부터다니는『전표』(傳票)사기사건으로 말미아마 세층상인과 청부업자를 울리는일이 잇는데 동해북부선 철도공사가 한창버러저잇는 강릉에서도생겻다 강릉군주문진면주문리(注文津面注文里) 채경길(蔡敬吉)(二七)동리채홍진(蔡鴻鎭)(二七)김호식(金浩式)(二〇)등세명은 철도공사청부업자가 발행하는 전표를수천원위조하야 금년오월이래 행사한총액이 실로이백륙십일원에 달하야 그들의행사하엿든 전표는 진부를아러보기가 어려울만큼 교묘하여서 크게두통이든것을 소관주재소의노력으로 진범을잡기에 이르러 지난십사일 일건서류와함게 강릉검사국에 송치되엿섯는데 금번유죄로결정 수일전강릉지청공판에 사문서위조행사급미수죄로 넘겻는데 전기삼인중김호식을제한두명은 전부전과자이라한다 ……명되엿슴으로 구류 이십구일에 처하엿다한다

拓殖道路惠長線 明年中에는完成

咸南道서工費二十七萬圓計上 警備道路·橋梁도架設

【咸興】함남도토목과에서는 고지대개발에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잇는 척식도로 혜장(惠長)선을 명년산년도에는 기어히완성할뜻으로 공사비이십칠만원을계상하고 총독부에 그예산을 신청하고잇다 그리고 이와아울너서 명년도에는 국경경비도로의완비를기하야 장진강(長津江)에 삼강교(三江橋) 허천강(虛川江)에 강구교(江口橋)의 두교량가설을계획인데 두교량가설공사비는 이십오만팔천원이된다고한다 이것이 명년도에실현되면 고지대를 종횡으로관통하는 산업경비도로의개설로 그개발에 일대박차를가하게될것이다

退潮港近海에 明太漁群襲來

【退潮】함남퇴조어항으로부터약이십노트되는 바다에 명태어군이 습래하여 발서서호(西湖)등지에서는 대풍획이라고함은 이미보도된바와 갓거니와 퇴조항에서는 금년정어리가 늣도록잡히는

幼兒大火傷

【大阪】지난이십칠일오전구시경에 시내동성구저사야정동지정칠정목 삼십일번지에잇는 조선주호(東成區猪飼野町東之町七丁目)집 이층에 사는 직공송병각(宋柄珏)의 …… 어머니가 외출한동안 …… 에 불이붓는 순간 불을 …… 빈사의중상을당하엿다는바 원인은 아직조사중이나 어린애가 혼자 성냥을 가지고놀다가 의복에 불이붓는것이아닌가고한다

故閔內宣氏遺志대로 마츰내認可指令

六年制의光宣公普로

【安城】안성군이죽면두교리(安城郡二竹面斗橋里)는 경기、충청양도의 도계가되고 안성 진천(鎭川)음성(陰城)등 군계로 되여잇서 부근학교가 대개이리이상의 거리에 상재하게되여 아동교육에 크나큰지장이 되여오든바 그곳유지 김영기(金英基)씨의 부친갈휼등으로 소화십일년 사월부터 성남간이학교(城南簡易學校)를 설립하고 부근아동을 교육하여오는터이엿스나 간이학교로는 완전한교육을 바랄수업서 다시보통학교로 승격코저계속활동하엿스나 원래 빈약한농촌경제로서 도저히 설립자금을 어뭇질이업서 유의막수로 나려오든중 경성장사정(長沙町)이백이십사번지민병선(閔丙宣)씨는 전기두교리부근이 그의고향이요 선영하이니만큼 기회만잇스면 교육사업과 사회사업등에 여러가지 시설을하라고 생각하여오든바 불행히도 작년에이세상을 떠나게되자 그의 숙부인민광식(閔光植)씨가그유지를바더서 선기념학교 (중앙기금으로 상당한 원의 거액을기부하게되자 도당국에서도 …… 기념키위하야 륙학년제의 광선(光宣)공립보통학교로 지난이십일부로 설립인가가 되엿스며 개교는 명춘사월일에 되기로되어 방금부지공사를 진행중이라는바 그곳주민의 기쁨은 물론이요 일반사회의 칭송이 갈수록 놉다한다

對岸情勢에對應 警官增配要求

近近第一線署長會議도開催 平北警察部萬全策

【新義州】압록강의결빙에따라국경경비는 점점중대화하야 금년의대안정세는 조선이상으로 경계를 필요케되여잇슴으로 평북경찰부에서는 국경제일선의 방비를 견고히하는동시 경찰관을 일백이십명증원을 총독부에 요구하엿다 한편이정세에대응할 제일선각서의련락을 하기위하야오는십이월십일경 위원(渭原)서 상류의 각서장을소집하야 복부(服部)경찰부장 대화(大和)고등과장임석하에 경계에대한 협의회를 개최하리라고한다

咸南山地帶의移民 入植無事히完了

【惠山】함남갑산군운흥면운흥리(咸南甲山郡雲興面雲興里)외삼개부락에는 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株式會社)의 최초사업인 조선내이민을 지난십일월일일부터 입식하기 시작하여 지난이십이일까지 무사히입식을 완료하엿다는데 입식된부락별과 인구호수는 다음과갓다한다

部落別	戶數	人口數
第一號部落	三六戶	一二三名
第二號部落	三一戶	一二一名
第三號部落	四二戶	一七五名
第五號部落	二一戶	四六名
第六號部落	二五戶	一〇五名
第八號部落	一七戶	四六名
第九號部落	二八戶	九四名
合計	一九〇戶	六九九名

郵便物集配開始 十二月一日부터

【惠山】수산도로연선도상에 잇는 함남군선안(咸仙線)의 연안이든 우편물집배는 금번우편소 신축을 기회로 실현을보게되엿다함은 기보한바이거니와 마츰내 십이월일일부터 하루두차례식 우편물을 집배하기로 되엿다한다

蘇滿國境서潛入한 商人風靑年取調

平壤署高等係에서

【平壤】평양서 고등계에서는 지난일일새벽 평양부내 관후리(館後里)태성여관(泰成旅館)에서 만주국 동흥현(滿洲國東興縣)에서드러와 묵고잇는 경상북도 청도(慶北淸道)출생이라는 김성호(金成鎬)(三〇)란 청년을 검거취조중인데 이청년은 소만국경(蘇滿國境)에서 다년간 두류하다가 상인(商人)의 모양으로 꾸며가지고 비밀히래평하야 모종의계획을 하는것으로 추측되여 취조의결과에따라 의외의 사실이 발각될지도 알수업다한다

公會堂建築協議

【木浦】목포공회당 건축기성회(公會堂建築期成會)에서는 지난이십구일오후일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위원회를개최하고 산본(山本)부윤으로부터 시국관계와 근본예산십오만원으로는 도저히 당초의계획대로 건축하기불능하다하야 여러가지로 협의결과 목포상공회의소(木浦商工會議所)가 공회당과동거할는지 아니할는지를 일단당국으로 교섭할것과 또는 선진도시 군산、대전(群山、大田)등지의 공회당을 참고적으로 시찰한후에 구체적결정을 하기로하엿다한다

中産層의崩壞따라 느러가는細窮民!

具體的救濟策업서過冬이難關 慶南에만廿一萬餘名

【釜山】농촌과 도시를 물론하고 중산계급이하층의 생활근은 점점 궁핍화하야서 세궁민이날이 갈수록 증가되고잇는데 경남도내 십월말현재의 세궁민통계를 보건데 실업자가 이만이천오백명이고 세궁민은 조선인십구만오백명 일본내지인이 일백이십명등 총합계 이십일만삼천일백여명이라하며 이들은 문자그대로의 참담한 생활을하고 잇는터이라 이들의 구제책수립이 급무중 급무인데 아즉까지도 아무런 구제책이 업서서닥처오는 엄동설한에 그들의전도가 퍽이나 우려된다고한다

三等路改修費 四十萬圓計上

【咸興】함주군일대의 대벌천의로인하야 군내각지교통망의 완비는 목하의급무라고 일반의요망에서는 서호(西湖)련포(連浦)간 삼등도로의개수와 교량가설 그리고 련포와 주서면(州西面)의도로개수의 두로선의개수를하기로하야 그공사비예산사십만원을계상하고잇다

新穀出廻增加

【鎭南浦】진남포곡물검사소관내의 신곡검사수량은 검사소개설이래 초기록적증가를보고잇다는바 이것을통계하여보면 정조이백사십팔만가마니로 작년보다일백륙십사만사천가마니가증가 미는 륙십구만일천가마니로 작년에비하여 삼십오만팔천가마니가 증가 백미(白米)는 사십사만이천가마니로 이십이만삼천가마니증가 대두(大豆)는 오만사천가마니로 작년보다 일만삼천가마니증가를 보게되엿다고 한다 그중에도 정조는 작년도의약삼배나 격증된것이라는바 원인은 금년이 대풍작인관계라고한다

兼二浦의借家數 總戶數의六割

【兼二浦】현재도시로서잇던곳을 물론하고 차가(借家)가 만흔것은 ……

釜山海上에서 船舶衝突頻發

原因은潮流急、船舶輻輳關係 人命無事、損害六千圓

【釜山】요사이 부산항내외에서 선박사고(船舶事故)가 빈발하야 일반선박업자들은 대공황에 싸혀잇스며 관계당국도 신경을날카롭게 하고잇는데 또 지난이십구일밤에 두건이 발생하얏다 그중의 하나는 동일오후구시경에 부산대교(釜山大橋)부근바다에서 부내 대교통(大橋通)에잇는 조선상선주식회사(朝鮮商船株式會社) 소유 한려환(閑麗丸)(七一噸)과 택산형제상회(澤山兄弟商會)소유 회룡호발용의 현미(玄米)일천오백가마니를 만재한 단평선(團平船)과 서로충돌되여 단평선과현미전부가침몰되엿는데불행중다행으로 승조원두명은즉시구조되엿다하며 손해는 약오천여원이라한다 그리고 또한건은동일오후열두시경 좌천정(佐川町) 풍전초구랑(豐田初九郞)소유 고기잡이 발동선제이소풍환(昭豐丸)이 그전날이십구일 전남완도(全南莞島)에서 석수어(石首魚)를 만재하고 부산어시장(魚市場)을 향하야 도라오다가 부산대교(釜山大橋)의 셋재교각(橋脚)에 격충되어 파손되엿는데 승조원일곱명은 즉시 구조되엿다하며 손해는 약일천원이라 그런데 이두사건의원인은 조류(潮流)가 너무 급하기 때문일뿐 아니라 선박이 너무 빈번한 관계라고 한다

龍岩浦水産學校 存續擴充을決定

教育方針도再檢討

【新義州】금년도예산설시의 도회(道會)에서 파란을 이르킨룡암포 수산학교(龍岩浦水産學校)처치문제는 신년도예산편성기를 앞두고 적지안은 주목을 끌고잇섯스나 실업교육(實業敎育)의 확충을하는때이니만큼 폐교문제는 단연 일축하는동시 금후교육방침에 재검토를 가하여 재정의 허하는 범위안에서동교의 충실을도모하기로결정되엿다한다

浮浦消防組創設

【安東】경북안동군례안면부포동(安東郡禮安面浮浦洞)은 수백호의가옥이 드러선 면내굴지의대부락임에 불구하고 아직까지소방(消防)에대한 시설이나 훈련이업슴을 유감으로 생각하든바 이지음 고교천치(高橋淺治)씨의 알선으로 소방조를 창립하게되엿는바 동민중의 유력자들은벌서삼백원가까운 기부금을 판출하엿다하며 십이월일일 전국방화데-를계기로 전원기세를 올일예정하에 맹렬한 연습을계속하는중이라하며 전원삼십사명중 선정된 임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組頭 李中仁 小頭 李中憲 李源赦 班長 琴鎬在 李璟鎬 李尙鎬 李源潤

沙里院鳳花幼稚園開園式

密陽郡下强盜 虛僞申告로判明

【釜山】지난달 십오일오전한시에 경남 밀양군 하남면 파서리(密陽郡下南面巴西里) 김병길(金炳吉)집에 침입한 이인조의식도강도(食刀强盜)사건은 그후관할경찰서에서 여러가지로 조사한결과 전기 김병길이가 그의이웃에사는 박모(朴某)에게빗 삼십원잇는것에 쪼들니다 못하야 갑지못하는 구실을 삼기위하야 허위강도신고(虛僞强盜申告)를 한것이 지난이십팔일에판명되엿다

平北水害復舊工事 十五萬圓에落札

【新義州】평북도금년도의 수해복구공사비(水害復舊工事費)총액은 기보한바와가티 삼십만원인데 목하입찰에부한 로선은 정삭선(定朔線) 운창선(雲昌線) 신혜선(新惠線)의 삼선으로 십오만원에 락찰되엿다 그리고남어지십오만원도 속히 입찰에부하려고 토목과에서 설계중이라한다

新浦港서出沒튼 二人組强盜就縛

【咸興】어항을 놀내이든 가혹사 소년강도가 체포되얏다 방금어기로 풍성한 신포(新浦)항에서는 이달십일월 일밤신성환(神成丸)선주인 지전(池田)씨가 귀택도중 가짜형사에게 수색을 밧고서 현금사십오원을 강탈당한곳을비롯하야 이일삼일 련접허 이가튼 가짜형사의 출몰범행이계속되야 주민들을 자못불안중에잇든바 동주재소에서 총동원하야 필사적활동을한결과 며칠전 신포리에잇는 고병문(高炳文)(二〇)김동순(金東淳)(二〇)의 두소년을 용의자로 인치하야엄중취조한결과 이십일진범으로판명되엿다 그들의 자백한바에의하면 그들은 우에쓴것과가튼방법으로 이십일까지에 십일건 삼천원을 강탈하엿다

七百萬枚를目標로 叺、莚大增産을計畫

慶南道서 具體案樹立

【釜山】경남도에서는 농가의부업(副業)으로 오는십이월부터 명년구월까지 십개월간 가마니(叺) 섬피(莚)의 대증산 장려계획을 수립하고 방금착수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그계획내용은 다음과갓다

蔚山叺	三百五十萬枚
細叺	百五十萬枚
鹽叺	五十萬枚
莚	百六十萬枚
合計	七百十萬枚

共學制를實施 學校名도統一

【平壤】전조선학무과장과 시학관회의에 출석햇다가 이십구일 귀임한 무전(武田)평남도시학관은 다음과가티이야기한다

一 금후의 교육은 황국신민으로서의교육 내선일체인고의단련등 세가지를 주로한교육을 실시하게되엿다 소학교、중학교、고등녀학교등은명년 신학기부터 내선공학으로하게되엿스나 급속히는 할수업고 순전히 공학을 하기까지에는 학교조합관계도 잇서 구체화할때까지 상당한시일이걸닐터이다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녀자고등보통학교를 금후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녀학교로개명하게되엿는데 학교가 만흔지방에서는 지방명、혹은정명(町名)을 부치기로될터이다 제이차 초등학교 확충계획에대한 평안남도의 신설학교 수는 좀더잇서야발표할수잇다 그런데 근일평안남도중등학교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부의사항에대한 협의를하기로되엿다 운운

元山運送業者도 宅扱制實施反對

緊急總會서陳情決議

【元山】지난십이월일 십오일부터 조선전국철도에서 실시한 철도국에서도 명일실시하려는 소운송의 택급제도(宅扱制度)라는것을 실시하려고 방금입안중인모양인데 이리되면 소운송업자인 전조선 일천오백명의비합동운송업자와 그가족과 종업원을합한 십삼만인의 사활에관계하는 중대문제라고하야 전조선각지에서 반대봉화를 올리고 잇는 이때 원산의 륙십여운송업자의 향배가 주목되여오든바 이정세를 주시하고잇든 원산운송업자조합에서도 지난삼십일오후칠시부터 시내 국태관에서 긴급총회를 소집하고 장시간에긍하야 협의한결과 다음과가티결의하는동시 진정위원을 선거하야 진정서를 작성 관계요로에 택급제도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하고 동십시경 산회하얏다

決議

一、目下鐵道局에서 立案實施하려는 宅扱制度의改善을 期하며 偏頗한 小運送政策의改善을 期함

一、社會的으로 虐待밧고잇는 我等業者의 救濟를 圖하야 特히 朝鮮의特殊事情에 適切한 法案實施를期함

陳情委員 韓君瑞 金虎鎭 姜鶴仁 玉林加一 後藤榮

潭陽商友會定總

【潭陽】담양상우회(潭陽商友會)정기총회(定期總會)를 지난이십오일 오후칠시부터 읍내화내가(花乃家)루상에서 동회부회장국기현(鞠琦鉉)씨의 사회로 개회하고 회장삼평치(森平治)씨의 사업보고와 회계보고가잇슨다음 역원(役員)을 개선한바 회장 삼평치(森平治) 부회장 국영현(鞠榮鉉)씨가 피선되얏스며 기타간사는 전임자(前任者)제씨가 피선되얏스며 계속하야 근속점원표창식이잇섯는데 수상자는 다음과갓다더라

五年勤續者 鞠眞晩
同 呂奉九
三年勤續者 姜忠鉉
同 朴鋼辰

清水精米工場爭議 從業員勝利解決

賃金一割引上決定

【釜山】지난이십구일오전구시경 부산부범일정(凡一町)에잇는청수정미공장(淸水精米工場)직공일백오십여명(男百名女五十名)이물가등귀에따라 현재의임금하로십사오시간 일하고 최저십칠전최고구십전으로는 사라나갈수업스니 임금을 인상하여 달라고 공장주에게 요구하엿스나 공장주는 이를 거절함으로 직공들은 태업(怠業)을하게되여 형세가 악화되엿섯는데 이것을 부산경찰서 고등계원이 탐지하고 현장에달려와서 직공측과 공장주에게여러가지로 알선한결과 결국일할을 인상하기로하고 해결하엿다고한다

暗夜警備船까지出動 搜査陣一層緊張

被害額數千圓豫想

【鎭南浦】진남포경찰서에서는지난이십칠일이래 대규모의 리-레식절도단을 검거코저 불철주야대활동중이라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십구일밤에는 경비선을 출동시켜 황해도방면으로 수사진을 빼치어 유력한 혐의자를 검거하여가지고 삼십일도 계속하여 부내각소로 수사중이라는바 그자들은 전부쇠(鐵)도적들로서 방금경찰서 뒷뜰에쇠압수한것이 산가티싸엿다고한다 취조하여보기전에는 확실한수자를 알수업다고하나 피해액은 최소한도 수천원에 달하리라고한다

肥料資金廻收着手 平南에百餘萬圓

【平壤】평안남도농무과 작년봄과가을 그리고금년봄에 각농촌에대부햇든 일백이십오만원의비료(肥料)대리자금회수에 착수햇는데 미증유의 풍작이기때문에 회수성적이 조타고는하나 농촌에서는 작년의대한해로받은 상처가아직까지 회복되지안흔곳도 만허서 그결과가어찌될는지 주목되고잇다

消防組大演習

【安東】시국이점점중대성을띠어가는 이때에 자원애호방지운동(資源愛護防止運動)의 필요를통감하고 이미전국적으로 국민정신운동의한부분으로 나타나잇스므로 경북안동읍(安東邑)에서는 안동경찰서(警察署) 안동소방조(消防組) 안동읍사무소(邑事務所)등 련합주최로 오는십이월일일을기하야대규모의『방화데-』를 실시하기로 되엿다

出役中의竊盜罪囚 大膽히變裝避身

大邱刑務所安東支所에서 이번이세번째의事件

【安東】경북안동읍신세동(安東邑新世洞)에잇는 대구형무소안동지소(大邱刑務所安東支所)에서는 지난팔월경에 외역하든죄수한명이 탈옥도주하야 세상을놀내게 하엿스나 며칠이안되여 례안면시장(禮安市場)에잇는 례안교(禮安橋)라는 다리밋테서 무난하게 포박하엿다 그런데 그죄수는 불과한달밧게남기지안흔 형기를참지못하야 백주에붉은죄수복을입은 그대로 오십리박갓지 도주하는 대담한 사람으로 다시팔개월의 가형을밧게되든지 두어달밧게지나지안은 이때에 또다시 탈옥사건이 이러나게되엿다 지난이십구일 ……에 형무소압 농업창고(農業倉庫)기지를 정리식히노라고 …… 세사람의 죄수가 …… 틈을타서 붉은죄수복을 벗어던지고 …… 도주하엿다는데 …… 형무소에서는 즉시 형무소원을 총동원하야 …… 수사중이라한다

長篇小說 濁流 【52】

蔡萬植 作 鄭玄雄 畵

「조고만한事業」(6)

계봉이가 학교에가느라고 책보를인고 대문로내려서다가 질급하게 놀래어

『아이구머니!저를 어째!』

소리를 웨친다. 안ㅅ방에서 식구들이 우一하고 몰려나온다.

『그래 이놈…』

땅땅 얼으면서 먹곰보는 수죄(數罪)를한다.

『…네가 이놈, 침ㅅ대롱ㅅ개나 가지면 김생원 박생원한다더라구. 그래, 네가 의술ㅅ개나 한다는놈이 남의 어린자식이 방금 죽는것을보구서두 약한봉지 써주지를안쿠 치한대만 노하달라구 애걸복걸을 해서두 그냥 말엇다니…… 그래서 필경 내자식을 죽여노하?…… 이놈!』

이를 부두둑 갈면서 승재의 맥집조혼 따구를 재처 뻔새잇게 올려붓친다.

승재는 한두 어이가업서 말도못하고 빼언하니 마주 보기만한다. 그는 빵을마저 아픈것보다도 얼굴로 불끈불끈 뻗기는 술냄새에 비위가뒤집혀 견델수가업다.

먹곰보데아낙이 술끔술끔 들어와서 남편의 팔을잡고 조혼말로하지 왜이러느냐고 말리는가 어디맛든것이 고수한눈치다. 신용을한다. 그러기는해도 승재 뒤눗게 정주사가 신발을 끌고 허둥지둥 내려오면서

『원 이게 웬 행패란말이고! 이손! 이걸 노치못할텐가!』

하고 호령호령한다.

먹곰보는 힐끔 돌려다보더니

『죄一한 정주사의 풍신이 눈에도 차지아니한다는듯끼 우아래로 마슬른면서 씨어뱃는다.

『이건 왜 나서서 이모양이야? 꼴갓잔케……』

유씨와 초봉이는 벌벌 떨고만서고 계봉이는 휘휘 둘러보다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간다.

『이놈 경찰서루 가자. 너가튼놈은 단단히 벌을 좀 아르켜야한다』

먹곰보는 얼러대면서 멱살을 잡은채로 잡어 나꾸친다. 그럴때에 퍽 소리와가티 장작개비가 먹곰보의 엽구리를 후려갈긴다. 계봉이가 그러고잇다. 그는 이를 앙물고 재처 후려갈기려다가 부친한테 떠밀려 물러선다.

지나가든사람이 여럿 문깐으로 기웃거리고 몃은 마당으로 드러서서 구경을한다.

정주사는 연신 호통만 하고섯고 계봉이는 분에 못이겨색색하면서 발을 구른다。

승재는 뒤를 돌려다보고 누구한테라업시

『해!침』

하고 정직해서 우더니 먹곰보가 면상을 집고비틀긴 팔뚝을 흉크려쥐고 잡어비튼다.

다가튼 장정이라도 승재편에 원체이 손고 그러면다가 먹곰보는 술이 취해노하서 그래서 용을 쓰지못한다.

승재는 부채살가티 손구락이 확 펴서 비틀린 먹곰보의 팔목과 얼골을 번갈러보다가 그의 아낙한테로 밀어제치면서

『데리구가우. 내가죽엿소?당신네가 죽엿지…』

두려두러하고 물러선다.

『오一냐 이놈보장 저밥아상(飯床)두 유분수가잇지 이놈네가 되레 사람을치구…』

먹곰보가 이러케 웨장을치면서 비틀거리고 도루 덤벼드는것을 그의아낙이 뒤에서 허리를 그러안고 늘어진다 그리자 마침 양서방이 명님이를 뒤세우고 헐레벌레 달려들더니

『이사람이 환장을햇나? 이건어데리구…』

나무래면서 사정업시 떠밀어테친다.

『아 형님…』

『형님이구 지랄이구 저리 물러서! 당장 집으루 가』

양서방은 먹곰보를 한번 떠밀어내던지고 승재아프로 가까히와서 술먹은 개라니 저녀석이 지금 자식을죽이고 환장해서 그러니까 참고 탄하지말라고 사정을한다. 승재가 면살잽이에 따구까지 두대 어더마즌줄은 그는 몰으는 판속이다.

승재는 별말 아니하고 어서 데리고 가라고 훈연히 대답을한다.

먹곰보는 더 덤벼들려고는 아니하고 몸을 휘청거리면서 승재더러 욕만 해퍼붓는다.

『이놈아 네가 명색 의술을한다는놈이 그래 이놈 내자식이 죽는것을보구두 모른체해야올하냐?그러구서 왜 진즉봐잣엇느냐구 내여편네를 호령을해?이놈 당장 목을졸라죽일놈 이놈 이노옴!내자식내노하라 이놈』

명님이가 얼굴이 새빨애가지고 나서서 여러사람 틈으라는드끼 먹곰보를 몰아센다.

『…다 죽어서 아주 숨두 안쉬구 그랫서요 그러걸 주사를 놋는다구 죽은애기가 살어나요?괘一니 죽은동정한테 주사노앗다가 정말 죽엇다구 애맨소리 듯게요?……。생으루 어어지를 쓰면 본사람두 업나요 머…』